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을 때리면 나도 맞게 되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 받는다.
남에게 성내면 나도 성냄 받는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6일)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불자 건강지킴이’ 지역사찰이 나선다

조계종 도반HC, 기업들과 무료 검진 서비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병원이 아닌 사찰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된다. 또한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노년층 신도가 많은 불교계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IT기반 사회공헌 플랫폼 설계 전문기업 도둠코리아(대표 이상기), U헬스케어 구축기업 ㈜헬스맥스(대표 이상호)는 4월 2일 MOU를 통해 ‘U템플헬스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U템플헬스케어서비스는 도반HC와 각 분야 전문기업들이 함께 전개하는 ‘1사(社)1템플 힐링 건강체험 캠페인’이다. 도반HC는 조계사와 봉은사를 시작으로 3년간 종단 산하 주요사찰 200곳에 U헬스케어 시설을 설치, 스님과 신도를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찰을 찾는 대중은 심혈관 질환과 만성대사질환 등을 개인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 데이터의 누적관리와 추이 변동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사찰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자동심장충격기기도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인 ‘캐디(CADY)’는 ‘Care Diary’의 줄임말로 매일 건강 일기를 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캐디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성분계, 신장계, 자동심장충격기 등 IoT장비로 측장한 생체정보를 지정맥과 블루투스, 와이파이와 같은 다양한 통신방식을 통해 데이터로 축적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춤형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반HC 측은 “불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자의 건강은 한국불교의 큰 관심사임에도 일상적인 관리가 미흡해 병이 생긴 뒤에야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실정”이라며 “U템플헬스케어는 일상적인 건강 체크와 더불어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연계,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즉 불교계가 지역 의료계와 함께 불자들의 주치의로 거듭난다는 게 사업 주체의 설명이다. U헬스케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불자는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며 운동효과를 얻고, 건강검진을 통해 지역 의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상담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계는 고령신도들의 건강정보를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어 각종 질환으로 인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지역사회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충당한다. 이로 인해 사찰과 불자는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와 기부금영수 처리가 지원된다.

도둠코리아–㈜헬스맥스 연계
4월 2일 조계사부터 시범사업
3년간 200개 주요사찰 목표로
지역기업 사회공헌 유치 나서

혈압·스트레스·체성분 등 검진
스마트폰 앱으로 결과 확인도
고령신도 많은 불교 도움 전망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개시식에는 도반HC 회장 원행 스님과 대표이사 지현 스님,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 등이 참석해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 ‘캐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서 도반HC 회장 원행 스님은 “좋은 기기와 건강관리시스템을 출연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 종교계 첫 사례이면서 불자들에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재가불자뿐만 아니라 스님, 사찰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혈압계와 스트레스 측정계 등을 이용하며, 검진결과를 직접 확인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반HC는 참여기업 공문을 접수해 대상사찰을 선정할 예정이다. (02)720-1576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새기는 봉축 표어를 ‘우리 모두 하나 되어’로 정했다. 표어는 나와 가족, 우리 사회 각계각층, 남과 북 등 세계는 모두 한 송이 꽃 ‘세계일화’라는 취지로, 우리 모두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염원을 담았다. 조계사는 4월 2일 표어로 도량등 장엄을 마치고 4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도량등 점등식을 개최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고려 전기 마애약사불 처음으로 발견

가야문화재硏, 거류산서 확인… 개인 블로그서 인지·추적

보고된 적 없는 마애불
특유 지역색 중요 가치

지금껏 확인된 적 없는 마애불이 경남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학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마애약사불좌상을 경남 고성 거류산서 발견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거류산에서 직접 조사·발견한 마애약사불좌상은 크기 약 5m의 큰 바위 서쪽 평평한 면에 높이 2.54m 크기로 새겨져 있으며, 얇은 선으로 새긴 신체 위에는 가사가 이중착의(二重着衣)로 걸쳐진 형식이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린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에 보주를 들어 약사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큰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좌선한 형태를 지닌다.

마애약사불좌상은 둥글넓적한 얼굴에 과장된 이목구비, 짧고 선명한 목에 세 개의 줄(삼도, 三道), 부조로 새긴 머리와 얇은 선으로 표현한 몸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통해 마애약사불의 존재를 인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상의 위치를 추적했다. 결국 거류산 일대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지난 3월 22일 불상을 발견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경남 고성 거류산에서 발견한 고려 전기 추정 마애약사불좌상.

연구소 측은 “경남 고성은 현재 불교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곳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마애약사불’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마애불은 고려 전기의 작품인 제천 월악산 덕주사 마애불(보물 제406호)과 같은 양식을 보인다”면서 “이는 고려 전기 수도인 개성에서 보였던 양식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것으로 지역 특색을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미래, 교육불사에 달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교육불사 후원법회 유시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려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오는 4월 10일 봉행되는 ‘교육불사 후원법회’를 앞두고 유시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공개된 유시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에 달렸음을 전제하며 “불교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고통받는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신심과 대비 원력으로 애민중생하고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는 바른 수행자를 양성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불사가 더욱 흥왕해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우후죽순처럼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교육불사 후원법회’는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원행)의 주최로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봉행한다.

지난 10년간의 승가교육 개혁불사 과정과 성과를 종단 안팎에 알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후원법회는 승가교육 개혁불사 현황 보고·각계 축하 메시지·후원기금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宗正猊下 諭示

한국불교의 미래는 교육불사(敎育佛事)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불사(敎育佛事)가 더욱 흥왕(興旺)하여 종단은 물론 사회와 인류에 공헌할 동량지재(棟梁之材)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출현하기를 기대하며 격려합니다.

一把柳條收不得(일파유조수부득)하여 —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和風搭在玉欄干(화풍탑재옥난간)이로다. — 봄바람에 옥난간 벽에다 걸어 둠이로다.

불기2563(2019)년 4월 10일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교육불사 후원법회

일 시 불기2563(2019)년 4월 10일(수) 오후 2시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지하 2층)
후 원 국민은행 023501-04-213385 / 재)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문 의 02-2011-180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원행 합장

태고종 前총무원장 운산 스님 입적

4월 2일, 세수 78세 · 법랍 60세



태고종 제 22 · 23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운산 스님〈사진〉이 세수 78세 법랍 60세를 일기로 4월 2일 오후 11시 입적했다. 운산 스님은 194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대전 보문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 용봉당 이재복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1968년 한국불교청년회 사무총장 등을 맡았다. 1975년 태고종 총무부장으로 임명이후 종단 업무에 매진했다.

운산 스님은 종단 법인 설립과 순천 선암사 총림지정, 사간동 전통문화전승원 건립 등을 이끌었다. 특히 종립대학인 동방불교대학과 일반대학원 과정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운산 스님은 종교간 대화에도 앞장서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운산 스님 문하에는 태고종 부원장을 역임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과 논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일산 덕양선원 주지 법상 스님 등이 있다.

운산 스님의 영결식은 4월 5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태고종 종단장으로 열렸으며, 다비식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 회향선원에서 엄수됐다. **노덕현 기자**

독단 정관 개정에 깊어지는 갈등

〈포교원-여성개발원〉

4월 1일 임시이사회 적법 논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장 선임을 두고 포교원과 갈등을 빚어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상 절차 외 이사회를 열고 신임원장 임명과 정관 개정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 개정관 정관에 따라 원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0월 30일 이사장 승인이 없는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후보를 추천, 이후 이사장의 원장 미임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외숙 수석부원장을 지명, 운영해왔다. 이에 이사장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원장 직무대행으로 비구니 정현 스님을 임명했지만 업무인수 과정에서의 개발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정현 스님이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사회 적법성 인정되나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사상 초유의 원장 공석 상태가 지속, 이사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열었음을 주장했다.

현재 쟁점은 이 이사회의 적법여부다. 불교여성개발원 측 주장과 달리 포교원은 임시이사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교원 측은 4월 2일 입장발표를 통해 "1일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가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은 불법 행사"라며 "불법이사회에서 결의된 정관 변경과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은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4월 1일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 후 여성불자들이 여성개발원 입구에서 결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했다. 이사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도 부여했으며, 원장을 비롯한 임원 임명권도 이사회에 부여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설립 당시와 달리 2012년 4차 개정에서 이사회에 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원장 의결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 측은 3월 21일 5:5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이후 3월 24일 불교여성개발원 측이 이사 및 감사 명의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포교원은 3월 26일 불교여성개발원이 지혜로운 여성으로 전출한 불교여성광장 기금 등의 재정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추가로 3월 28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포교단체의 종령을 통한 관리기준 마련 방침이 발표됐다.

이사회 권한 강화, 견제는 누가?

문제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스스로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문제가 확산된다는데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사회로만 의결구조를 가져 그동안 불교계 일각에서 '서클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활동력있는 여성불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온 초기 조직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을 골자로 종단의 지도관리, 인사권까지 여성개발원 이사회가 갖는다면 사실상 독주체제를 띄게 된다.

2018년 2월 9일 개정된 7차 불교여성개발원 정관을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에 대한 자격은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조계종 신도, 일정금액 이상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조계종 신도, 회비 납부 외에는 모호한 기준이다.

초창기 여성개발원 업무에 관여했던 한 여성불자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 인 상황에서 이사 선임 또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는 구조다. 주요의결이 친소관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친소관계에서 배제된 여성불자들은 자연스럽게 개발원을 외면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회원여성을 대표하는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 10% 참여한 총회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대의성을 가져오는 총회에 대한 제도상 근거가 없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다양한 포교 신도단체들이 회비 납부를 기반으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구성, 이사회에 대해 견제, 또는 대표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다.

일부 명망있는 여성불자들과 종단의 주도로 이뤄진 조직체에 맞는 현행 제도는 이제 여성개발원이 원하는 전체 여성불자를 대표하는 조직, 자율적인 운영으로 불자여성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 1일 임시이사회 후 임시총회를 열고 자율성 수호를 위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임시총회에는 전체 800여 회원 중 79명 만이 참여했다.

여성개발원 관계자는 "회비 납부 기준으로 320여 명 중 79명이 참여했다. 현재 정관상 근거는 없지만 총회 형식을 통해 향후 대표성을 띄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백년대계본부장에 정념 스님

4월 2일 임명,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장 겸직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백년대계본부 본부장에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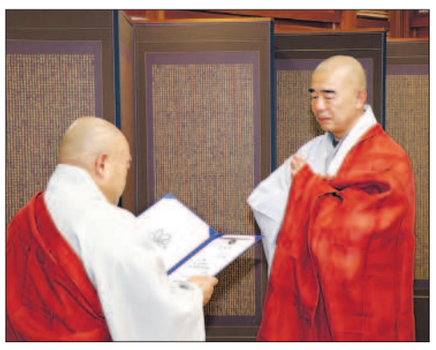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백년대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백년대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공동본부장이던 도법 스님과 호성 스님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장기화됐다.

백년대계본부는 정념 스님의 본부장 임명으로, 현재 신설 예정인 △화합과혁신위원회 △백만원력결집위원회 △문화창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출범과 4월 17일 열리는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념 스님은 백년대계본부 산하 위원회인 화합과혁신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키로 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본부장 임명식에서 "백년대계본부는 총무원 집행부 임기와 관계없이 잘 꾸려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미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월정사 주지스님을 모셨다. 백년대계본부가 종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념 스님은 "36대 집행부 기조가 화합과 혁신인 만큼 중차대한 과제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념 스님은 임명식 후 백년대계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설득과 공감이라는 가치 아래 종단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오른쪽)이 임명됐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모습.

정념 스님은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그림 그리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차분히 각계의 뜻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불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을 위해 백년대계본부가 맡은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향후 10년이면 기존에 형성된 문화와 제도, 사회적 가치들도 변화의 시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직시해 종도들과 미래의 방향설정을 하는 일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념 스님은 희찬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다.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제11 ·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득세법 개정안, 불교계와 논의 全無"

조계종, 국회 본회의 앞둔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제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되며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불교계와 논의가 전혀 없이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4월 1일 재무부장 유승 스님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종교인 전체에 관련된 국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일반언론에서 스님들을 '퇴직소득 감면 수혜자'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은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종교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한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된 언론보도 시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과 갱뱅” 힙합곡 불교폄훼 공분

힙합가수 김효은 씨 신곡 ‘머니로드’ 가사 논란 여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3월 30일 공개된 문제의 앨범커버사진(사진 왼쪽)과 힙합가수 김효은 씨. 사진=김효은 개인SNS

여성혐오 · 강력범죄 표현 담겨
“천주교 성체 모독 논란 상기”
조계종 종평위, 소속사에 항의
소속사 “음원 배포 중단 결정”

힙합가수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money road)’가 여성혐오와 범죄의 표현을 담아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해당 곡에 “부처님과 갱뱅(gangbang)”이라는 ‘불교 폄훼’ 내용까지 담겨 불교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는 다른 래퍼 브래디스트릿(brady street)과 함께 작업한 곡으로 3월 30일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 이 곡에는 “메갈년들 다 강간, 난 부처님과 갱뱅, 난 절대 안가 깜빵, 니 가족들 다 칼빵”이라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담겼다. 음원 공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메갈리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용어와 ‘칼빵’과 같은 범죄 행위 가사로 인해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누리꾼들이 이 곡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가수와 소속사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효은 씨와 브래디스트릿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휘 선택이 지나치게 과격했던 점을 반성한다. 하루빨리 가사를 수정해서 업데이트 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음원 공개 전,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해당 가사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점에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로 인해 이번 음원 공개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평가하는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불교를 폄훼하는 가사인 ‘부처님과 갱뱅’은 뒤늦게 불교계에 알려지며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갱뱅(gangbang)은 ‘윤간’ ‘난교’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다. 힙합계서는 갱스터들이 하는 행동을 ‘갱뱅’으로 표현하며 많은 곡에 가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갱스터 자체가 폭력배를 의미해 이를 불교의 교조인 ‘부처님’과 연관지은 점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불자들은 이 같은 가사가 지난해 남성혐오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의 천주교 성체 모독 논란을 상기시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평소 힙합음악을 즐겨듣는다는 한 대학생 불자는 “평소 김효은과 그의 소속사 앰비션뮤직 음악을 자주 들었는데 이번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앰비션뮤직은 불자래퍼로 잘 알려진 도끼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일리네어 레코즈 하위 레이블이다.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김효은 씨와 그의 소속사인 앰비션 뮤직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종평위는 공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처님을 언급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하고 추악한 범죄행위를 표현한 것에 묵과할 수 없다”며 “당사자와 소속사의 무책임한 행위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종평위는 이와 함께 △머니로드 가사와 관련한 종교 폄훼에 대한 진상규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음원 배포 중지 △재발방지와 참회 △진상규명 및 조치 등에 대한 회신을 김효은 씨와 소속사에 촉구했다.

앰비션뮤직 측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소속사에서 검수해야 했지만 곡이 급박하게 나오며 놓친 부분이 있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 잘못을 인정해 음원사이트에서 곡을 내리기로 했다”며 “가사는 개별 활동하는 브래디스트릿이 썼기 때문에 가사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생명나눔 홍보대상’ 신설

생명나눔, 선정위 1차 회의
위원장에 김진문 회장 선출
연말, 공로자 2명 선정 · 시상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 운동을 알리는 데 공헌한 이들을 시상하는 생명나눔 홍보대상이 새로 만들어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4월 2일 법인 회의실에서 생명나눔 홍보대상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대상 선정위원장으로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이, 손재현 동국대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홍보대상의 상명칭과 부상 · 상금 규모, 심의 방법 등이 논의됐다.

생명나눔 홍보대상은 1년 동안의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행사 기여도 △홍보 횟수 △전문성 및 성실성 △법인에 대한 관심도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관련 홍보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 · 심의해 공로를 치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 후원회, 홍보위원회 추천으로 이뤄지며 수상자는 선정위원회 심의 평가를 거쳐 연말에 선정된다. 수상 내역은 홍보대상 1인과 홍보우수상 1인으로 각각 상패와 홍보대상 200만원, 홍보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진문 선정위원장은 “앞으로 생명나눔을 위해 제일 열심히 노력한 개인과 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 홍보대상 선정을 위해 구성된 홍보대상 선정위원회에는 이사 및 후원회장, 홍보위원회 회장 등 내부 심의위원 4인과 객관적이고 홍보의 질적인 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언론인,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외부 심의위원 3인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4.3 희생자 넋 기리다 불교계가 제주4.3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제주4.3 사건 71주년을 맞아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추모재를 봉행했다. 사회노동위원 스님과 영산재 이수자 스님 등은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단에서 희생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배상을 위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기도에 깃든 원효 발자취는?

지난해 11월 경주와 경산 일대를 중심으로 ‘원효순례’를 펼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원효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4월 20~21일 경기도 일대에서 ‘화쟁의 원류를 찾아서-원효의 발자취 순례(경기편)’을 실시한다. 이번 순례서는 원효가 중국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화성 당성, 수도사 오도체험관, 약사여래를 만나 창건한 흥국사, 선정에 전념한 토굴이 있는 원효사 등을 순례한다. 이와 함께 용주사에서 1박을 하며 순례 둘째 날에는 템플스테이 체험도 진행된다.

‘원효순례’는 걸림 없이 대중을 보듬어 안았던 원효의 발자취를 따라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고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 참가희망자는 4월 15일까지 화쟁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02)737-0864 윤호섭 기자

세계유산 ‘산사’ 타임스퀘어서 만난다

LG전자,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산사’ 홍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LG전자(대표이사 조성진)는 “문화재지킴이 사업의 하나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홍보 영상물을 오는 4월 10일까지 상영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번 영상 홍보는 한국의 세계유산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문화유산채널)이 홍보 영상의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고 LG전자가 보유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지원하는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보 영상물은 총 35초 길이로, 한국 불교문화의 역사성, 자연과의 조화, 문화의 지속성, 수행생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양한 산사 사진들에 3차원 입체(3D) 트래킹(Tracking) 영문 자막을 삽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영상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2주 동안 약 1,680회(1일 약 120회) 상영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소개되고 있는 세계유산 산사 홍보물.

문화재청은 “‘세계의 교차로’라고 일컬어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뉴욕 42번가, 7번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삼각지대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치열한 광고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세계적 문화 중심 거리이자 관광명소인 만큼 이곳에서 한국의 산사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 활성화 효과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석굴암과 불국사 등 불교문화유산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2개월간 소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에도 LG전자의 협조로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1일 40회 이상 소개됐다. 이밖에 2017년에는 런던 피커딜리 광장의 LG전자 전광판을 통해 석굴암 등이 소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여진선원 개원법회 봉행

봉은사(주지 원명)가 4월 8일 여진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봉은사는 지난 3월 대전 여진선원 운영지원사찰로 선정되며 관리인(주지)으로 성혜 스님을 임명한 바 있다.

여진불교문화재단 및 여진선원은 2009년 5월 27일 설립됐다. 이후 2011년 4월 7일 조계종에서 운영권을 인수하여, 2011년 7월 12일 직할교구 포교소 여진선원으로 등록됐다. 일반에는 여진불교미술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개원법회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여진선원 주지 성혜 스님, 여진불교미술관 이진형 관장을 비롯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여했다.

봉은사 측은 “여진선원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인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수행 및 포교에 전진도량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2)3218-4832

노덕현 기자

혜암대종사 수행도량 지리산 영원사 순례법회



조계종 제10대 종정과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하신 혜암대종사께서는 출가이후 평생토록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시며 고행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에서는 혜암대종사의 탄신 100주년(2020년)을 기념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수행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수행도량을 찾아서 봄 · 가을 순례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오는 5월 1일 오후 1시 지리산 영원사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제4차 순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일시와 장소 안내

■ 출 발 일 : 양력 5월 1일 수요일
■ 출 발 지 : ①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 오전 6시
②조계사 앞 : 오전 6시 40분
③강남 뉴코아 백화점 앞 : 오전 7시 30분
■ 동 참 금 : 4만원(점심공양 제공)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5902-01-626693 이유승(만법회)
■ 문 의 : 순례단 사무국장 이유승 010-4509-7308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 법

“호미는 佛性 일구는 화두와 상통”

‘호미 든 관음성상’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59년 젊은 불교학도 31명이 관음상 조성, 신불교운동 전개
당시 호미는 생산 상징했지만 현 시대인 인간성 회복 의미해
“대승불교 실천정신 되새겨야”

봉화 정토원(원장 선진규)에 봉안돼 있는 ‘호미 든 관음성상’이 조성 6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호미 든 관음성상’이 가지는 수행 · 사회 ·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30일 동국대 만해관 대강의실에서 ‘호미 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호미 든 관음성상’은 새불교 · 농민운동 대중결사에 참여한 젊은 불교학도 31명이 1959년 4월 5일 봉안한 것으로 새로운 재가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었다.

‘호미 든 관음성상’의 수행적 의미를 조명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호미’에 대한 의미를 수행론적으로 해석했다. 중생은 인성이 번뇌로 뒤덮여 불성이 잡초에 가려져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호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영섭 교수는 “수좌가 화두를 든 마음과 호미를 든 농부의 육체가 둘이 아닌 것은 화두와 호미가 내면의 번뇌를 끊어내고 잡초를 뽑아내는 기제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라며 “호미는 선종 형성과 발전의 전환을 이룬 〈선문규식〉과 〈선원청규〉를 상징하며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일구는 도구라는 점에서 화두와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호미 든 관음성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청년 불교학도들이 일으킨 ‘호미 든 관음성상’의 조성을 위한 청년불사와 대중결사는 우리 사회에 새불교 · 농민운동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강조한 고영섭 교수는 “이들의 결사는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시원이자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호미에 대한 시대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주장도 제기했다. 고영섭 교수는 “조성 당시 호미는 가난 극복을 위한 생산을 상징했지만 오늘의 호미는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아가 모든 중생의 영원한 생명력인 불성의 열매를 캐내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고영섭 교수는 “노동 생산 자체가 수행이며 궁극 목표는 성불의 증과임을 관음상은 환기시킨다”면서 “관음보살이 호미를 드는 발상의 전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교가 존재할 이유와 삶의 질적 전환이 왜 필요한지를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상의 사회적 의미를 살핀 장성우 동국대 교수는 〈전륜성왕수행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법의 정치, 약자들에 대한 구제 등은 현재에도 매우 유효함을 상기시키며 “호미 든 관음성상의 시대정신과 대승불교 실천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관음상의 의미를 조명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새로운 불교문화공간의 재발견 △사찰의 생활문화센터화 △불교문화자산 공유 방안 모색 등을 향후 불교문화운동 진흥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수 교수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미디어 기기에 탑재되고 생산되면서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불교문화의 요성들이 인드라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봉화 정토원은 4월 5일 봉화산 정상 호미 든 관음성상 제단서 기념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글로벌 연등회, 우리가 책임진다”

2019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탄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한국대표 문화축제로 명성을 높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연등회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연등회를 바르게 알릴 국제 서포터즈들이 탄생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2019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산하법인 문화나눔과 함께 준비한 서포터즈는 4월 6일 진관사 템플스테이 합숙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등회 홍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번 글로벌 서포터즈는 지난 2월부터 모집, 150여 명이 진원해 평균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최종적으로 26개국 60명(한국 20명)을 선발했다. 재참가자는 4명이다.

봉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가하는 서포터즈 중 과테말라 출신의 미국인 로렌조 프리아스 (Lorenzo Frias, 21)는 건국대에서 공부하는 의학전공 학생으로 한국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고, 10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했다. 또 다른 서포터즈 벨기에 출신의 지젤 스위튼(Gisele Switten, 30)은 개인적으로 한국불교 공부를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

글로벌 서포터즈는 앞으로 1개월간 연등회 역사와 예절, 연희 등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광화문 점등식, 연등행렬, 전통문화마당 플래시몹 등에 참여해 봉축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윤호섭 기자



글로벌 서포터즈로 선정된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지역중심으로 변화한다

중앙신도회 2019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계획 발표

지역 문화축전 중심 전환
508개 전국 모금소 운영
20개 본사 및 400여 사찰
지역주도형 캠페인 발전

불교계 대표 공익캠페인인 행복바라미가 지역 중심으로 전환된다. 불교계 장기 캠페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변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4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문화대축전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서울지역 문화대축전 행사는 4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서울 문화대축전에서는 행복바라미 알림식과 함께 범패와 나비춤 등 문화재 공연, 대중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보고 즐기는 전통문화 전시, 전통문화체험,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의 세 가지 테마로 캐릭터 조형등과 전통놀이 체험존 등을 설치해 시민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행복바라미 조형등은 4월 3일 사전 설치를 시작으로 4월 14일 오후 8시까지 청계광장 일대에서 볼 수 있다. 또 4월 14일 오전 11시부터 대형 칠보놀이, 투호던지기, 윷점치기 등 전통놀이체험존이, 연꽃만들기와 연화다실, 가훈쓰기 등도 청계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축제도 더욱 확장된다. 2018년의 경우 전국 10개 주요도시에서 열린 지역 문화대축전이 인천, 남양주, 수원, 공주, 광주, 강릉, 대구 등 총 21개 지역에서 열린다.

지역 문화대축전에 참여하는 불교계 단체와 사찰도 늘어난다. 지난해 9개 교구본사가 동참했지만 올해는 법주사, 월정사, 화엄사, 통도사 등 총 20개 교구본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사찰측의 적극적인 통함으로 전국 508개 모금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바라미 거리모금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모습.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7년차를 맞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현재 매년 모금액이 늘고, 정부인증을 받는 등 성장세에 있다”며 “캠페인의 지역 확산과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각 지역의 사찰을 비롯한 단체들이 주도하는 문화축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사찰 측의 동참을 위해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교구본사를 비롯한 40개 사찰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불자들이 연중 한차례라도 소외계층을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행복바라미”라며 “불교계가 사회 공공선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사찰 보살계수계산림 잇달아

통도사 4월 9~11일 · 범어사 4월 18~19일

전국사찰에서 대중들의 계율 수지를 위한 보살계가 펼쳐진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4월 9~11일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열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 불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한다. 수계 산림은 3일 동안 입재식과 산림법석,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다. 통도사는 30 · 20 · 25 · 10회 등 보살계를 받은 수계자들에게 기념 메달, 금색가사 그리고 성만패를 전달, 격려할 예정이며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도 수여한다.

주지 영배 스님은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 근본도량이다”며 “자장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니 두루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055)381-1288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도 보살계를 개최한다.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18~19일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119회 보살계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입재식은 4월 18일 오전 10시이며 회향식은 19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수계산림은 천수다라니, 노사나불정근, 전계대화상 법문, 참선정진, 보살계법문, 수계식 및 계첩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범어사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 없는 세상에 너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나의 가르침인 계(戒)뿐이다. 그러니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 셨다”며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니 계를 통해 보살도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참 희망자는 범어사 원주실로 신청하면 된다. (051)508-3636

하동 쌍계사(주지 원정)도 4월 9일 입재식을 갖고 11일 오전 8시 대장경 정대불사를 끝으로 보살계 대법회를 회향한다. (055)883-1901

하성미 기자

행사문의 _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T. 02-733-7277 F. 02-733-7278 www.everygoodday.org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2019. 4. 14.(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



4/14 _ (13시 ~) 권원태 연희단 줄타기, 풍물놀이, 전통무용, 퓨전국악 등 전통 문화 공연 및 다양한 체험행사
(16시 ~)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행사
└ 축하공연 : 국악계 아이돌〈남상일〉 전국노래자랑 스타〈지병수 할아버지〉 세종우리문화예술연구회 국악밴드, 포천시립민속예술단

4/13~27_ 나눔문화 캠페인

4/7~7/19_ 지역문화제 (전국 주요 20여 곳)

4 / 7(일)	5교구 법주사	5 / 5(일)	9교구 동화사
4/20(토)	4교구 월정사	5 / 5(일)	11교구 불국사
4/27(토)	19교구 화엄사	5 / 7(화)	22교구 대흥사
4/27(토)	23교구 관음사	5/11(토)	12교구 해인사
4/28(일)	15교구 통도사	5/11(토)	14교구 범어사
5 / 1(수)	6교구 마곡사	5/12(일)	18교구 백양사
5 / 3(금)	17교구 금산사	5/12(일)	10교구 은해사
5 / 4(토)	2교구 용주사	5/25(토)	24교구 선운사
5 / 4(토)	21교구 송광사	6 / 8(토)	8교구 직지사
5 / 5(일)	3교구 신흥사	7/19(금)	25교구 봉선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	(사)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유쾌한 ‘할담비’ 기도가 만들었죠”

〈할아버지+손담비〉

전국노래자랑 ‘미쳤어 할아버지’ 지병수(77) 어르신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최근 2~3주 내에 공중파 방송을 탄 일반인 중 가장 큰 유명세를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 단언컨대 기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대상은 바로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전국을 발칵 뒤집은 일명 ‘할담비’ 지병수(77) 할아버지다. 호소력 짙은 미소로 소위 박자를 ‘갖고 논’ 지병수 할아버지는 TV출연 이후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스타가 됐다. 며칠 전에는 꿈에 그리던 손담비와의 합동공연을 경험하고, 광고업계의 출연 제의까지 받으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는 지병수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신심 깊은 불자라는 점이다. 정관 스님이 관장을 맡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애용하고, 오래 전부터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심을 키워온 지병수 할아버지 특유의 유쾌함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젊을 때 빚보증에 시달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살아가면서도 남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지병수 할아버지를 4월 3일,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인터뷰했다.

나는야 아이돌 노래 전문가

지병수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복지관을 찾았다. 지병수 할아버지는 TV출연 이후 지금까지 꽤 많은 인터뷰를 소화한 것을 알기에 한편으론 고령의 어르신에게 죄송한 마음이, 다른 한편으론 연예인을 만나는 듯한 들뜬 마음이 교차했다. 약속장소인 복지관 세미나실 문이 열리고 지병수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 TV에서 본 모습 그대로다.’

지병수 할아버지는 전국노래자랑 녹화 때와 같은 옷을 입었다. 체크무늬 재킷에 까만 가디건, 그리고 스트라이프 셔츠. 방송과 다른 모습을 꼽자면 연둣빛 넥타이가 빠진 것 하나였다. 방송 이후 열흘가량 지난 시점, 그간 지병수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물어봤다.

“요즘은 인터뷰나 방송출연 요청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어요.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죠? 남는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시간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방송 나가기 전까진 잘 몰랐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전국노래자랑 본방송은 편집을 거치기 때문에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다. 녹화 당시 지병수 할아버지는 허리춤에 불교의 진언인 ‘옴’ 글자를 새긴 장식을 차고 있었다. 이 장식은 춤사위와 함께 휘날렸고, 이를 본 MC 송해 선생이 무엇인지 물어봤단다.

“그때 복지관 관장스님이 선물로 준 ‘옴’자 장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스님께서 평소 이 장식을 꼭 차고 다니라고 하셨고, 저도 장식이 저를 보호해주는 부적이라고 믿거든요.”

편집 때문에 방송으로 볼 순 없었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불자 연예인인 송해 선생과 노래자랑 참가자 지병수 할아버지의 투샷(two-shot)을 잠시 상상해보니 흐뭇했다.

지병수 할아버지가 TV에서 보여준 노래는 손담비의 ‘미쳤어’와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2곡이다. 하지만 이날 지병수 할아버지는 편집됐지만 박진영의 ‘허니’도 선보였다. 예선심사에서도 관객 반응이 좋아 이 3곡을 내리 뽐냈을 정도로 할아버지의 끼는 대단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곡 외에도 소화 가능한 노래들이 있는지 궁금해져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돌 노래제목이 줄줄 나왔다.

“카라 ‘미스터’, 티아라 ‘러비더비’, 브라운아이드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젊은이 노래를 좋아해요. 내 또래들은 다 뽕짝 좋아하는데 나는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서 아이돌 노래가 좋더라고. 따로 동영상을 보고 연습하진 않는데 TV에서 몇 번 본 동작에다가 느낌 오는 대로 만들어 춤춰요. 복지관에서 가요교실 다니며 공부한 것도 도움이 됐어요.”



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지병수 할아버지에게 선물한 ‘옴’자 장식.

TV방송 이후 인터뷰 · 촬영 문의 쇄도
가수 손담비와 TV서 합동공연 경험
“늘상 웃는 얼굴에 대중 호응 감사해”

오랜 시간 겪은 아픔 이겨내 얻은 미소
긍정적 삶 사는데 불교가 큰 도움돼
“팍팍한 삶, 청년들 포기 않고 힘내길”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77세 어르신이 TV 몇 번 보고 아이돌 안무를 따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사실 지병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전통무용을 취미로 배웠다.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에게 사사한 故임이조 한국무용가가 지병수 할아버지의 스승이다.

“사업 실패하면서 임이조가 ‘형님은 끼가 많으니까 학원에서 애들 관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취미삼아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8년 동안 하게 됐어요.”

기도는 내 삶의 버팀목

대중은 지병수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와 긍정적인 모습에 환호를 보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아픔이 서려있다. 수년간의 옷 장사는 끝내 폐업하게 됐고, 전재산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친척 빚보증으로 날아갔다. 가정도 꾸리지 않은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모든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만 했다. 지금은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매월 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마저도 30만원은 월세로 낸다.

오랜 세월만큼이나 곡절도 많았던 지병수 할아버지가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는 기도의 힘이 컸다.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지병수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절에 드나들었다. 전북 김제평야에서 농사를 지은 부모님 영향을 받아 지병수 할아버지는 혼자서 금산사를 자주 다녔다. 서울에 정착한 뒤로는 도선사와 보문사를 재적사찰로 신행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엄청난 불자였죠. 어머니는 집 근처 작은 암자에 다니셨는데 저는 그냥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나중에는 아는 분 따라서 버스 타고 금산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도량이 좋아 불교에 귀의한 지병수 할아버지는 집안에 기도방을 만들어놓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따로 불상을 모시진 않았지만 한쪽엔 반야심경을, 다른 한쪽엔 부모님 사진을 두고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린다. 〈금강경〉과 〈천수경〉, 〈광명진언〉도 자주 듣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는 기도는 〈반야심경〉이다.

“남들한테 많이 당하면서 살았는데 불교에서 힘 얻었어요.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됐고요. 잃어버린 것에 마음 쓰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죠. 이젠 기도가 습관이라 빼먹고 싶어도 못 빼먹어요. 허허.”

지병수 할아버지의 방송출연 이후 종로구가 지역구인 정세균 前국회의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은 할아버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바빠진 일정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당부도 잊지 않았다고. “건강하게 복지관 다니면서 아프지 않는 게 꿈”이라는 지병수 할아버지는 인터뷰 말미에 젊은이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젊은이들이 길을 걷다 저를 보면 ‘미쳤어 할아버지?’라고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웃는 모습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면서요. 사는 게 그만큼 힘든가봐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생겨요.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마음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말이 해주고 싶어요.”



지병수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안무 요청에도 거침없이 춤실력을 발휘했다. TV에서 화제가된 손담비 ‘미쳤어’ 안무가 기자의 눈앞에 펼쳐졌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2019년 종단 200억 시주 마감



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현)남경중의약대학총장
현)대통령 국민 통합위원회 상임고문

불교조계종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불교조계종 시주금 예산의 200억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올해 불교조계종은 기업에서는 더 이상 시주를 받지 않습니다. 종단을 애종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에도 아낌없는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혜인·전국 주지 스님 삼배 합장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5056~7 / 팩스 : 02) 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 511- 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 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 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 .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경남불교계 봉축행사 준비 '만반'

울산 · 창원 · 통영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행사 확정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울산, 창원, 통영 등 경남불교계가 화려한 축제와 볼거리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울산시불교종단연합회(회장 명본)는 '2019 태화강 연등축제'를 오는 4월 26~28일 남구 태화강 둔치(구 태화호텔 앞)에서 개최한다.

연등축제는 4월 26일 장엄등 점등식과 전시로 시작해 27일 야외특설무대에서 예술제, 부처님 이운행렬, 울산문화제, 태화강 소망등 띄우기 등을 진행한다. 28일에는 발우공양체험, 이웃종교 합창제, 행복바라미 문화행사, 봉축법요식, 봉축 제등행렬 등이 마련된다. 제등행렬은 4월 28일 오후 7시 태화강둔치에서 출발해 태화로터리, 신정시장, 울산시청까지 이어져 총 1.2㎞를 아름다운 연등으로 수놓는다. 이외에도 만등연등불사, 불교문화체험, 캘리그라피, 연등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5월 10일 오후 7시 창원광장에서 '연합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봉축법요식은 육법공양, 관불의식, 봉축법어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8시에는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창원연합합창단과 가수 김연자 · 휘성 · 홍경민 · 정수라 · 김성환 등이 무대를 꾸민다.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봉축탑은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창원광장 로터리에서 불을 밝히며, '진해 봉축 한마당 축제(봉행위원장 해초)'는 5월 4일 오후 2시 진해 중원쉼터에서 문화한마당, 봉축법요식, 점등, 제등행렬 등이 진행된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는 '봉축 연합법회'를 5월 7일 오후 6시 20분 통영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에서 봉행한다. 봉축연합법회는 헌공의식과 작법, 봉축법요식, 제등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등행진은 한산대첩광장을 출발해 강구안 일대를 돌아오며 통영시에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을 기탁, 자비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주장자의 진수를 엿보다

인오 스님, 4월 19~24일 전람회 · 출판기념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혜의 지팡이로 불리는 주장자(拄杖子)는 스님들이 갖춰야 할 18가지 법구(法具) 중 하나다. 주장자는 스님들이 길을 걸을 때 안내하는 나침반이며 경책의 도구였고, 법을 일러주는 상징물이었다. 선사들이 법문할 때 주장자를 들어 올리면 부처님의 염화미소처럼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수해 수많은 언어를 대신하는 마음법이 됐다.

진리의 법구 주장자가 가진 상징을 널리 알리고 선사들의 가르침이 이어지길 발원하는 특별한 전람회가 열린다.

부산 원광사(주지 인오)는 책 〈주장자〉 출판기념회 및 전람회를 4월 19~2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개회식은 19일 오후 2시다. 전람회에서는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이 20여 년 동안 제작한 주장자 중 가장 뛰어난 33점을 볼 수 있다. 인오 스님은 겨울이면 주장자 나무를 구하러 산에 다녔으며 나무를 말리고 굽기까지 1년여의 시간을 들였다.

인오 스님은 "지팡이 역할을 하던 주장자가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점점 보기 어려워져 안타까워 전람회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주장자를 든 스님들을 뵈면 그 위엄에 환희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에서는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 아쉽습니다. 불교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전람회를 마련했으며 주장자를 드는 큰스님들이 많아져 부처님 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인오 스님의 주장자는 감태나무(연수목)로 제작됐다. 감태나무는 철분 성분이 많고 항암작용을 하며 독충을 막는 효과가 있다. 감태나무 주장자는 통도사 극락암 경봉 선사가 사용했던 나무이기도 하다.

현대사회 발달로 인해
보기 드물어진 주장자
20년 내공 담긴 33점
한자리서 대중 공개돼

인오 스님은 "반야, 지혜를 상징하고 경책을 하는데 사용돼온 주장자다. 재료부터 해로움이 없는 나무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인오 스님이 주장자와 인연을 맺은 건 은사인 통도사 근안당 지일 스님과 처음 주장자 나무를 구하러 내원사 계곡을 방문했을 때부터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 벼랑 끝에 있는 나무를 우연히 발견해 은사의 주장자를 만들었다. 지일 스님과 함께 주장자를 만들며 들었던 가르침은 평생 인오 스님의 지침이 되고 삶을 이끄는 지표가 됐다. 지일 스님은 인오 스님에게 "주장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장자는 살아 있는 법구가 돼야 하며 주장자를 드는 활구로 중생을 만나라"고 당부했다.


부산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이 20여 년의 내공을 담아 만든 주장자 33점을 선보인다. 사진은 인오 스님이 주장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인오 스님은 "포교 활동과 수행을 이어가며 은사스님이 그리울 때마다 한두 개씩 만든 것이 오늘의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인오 스님은 은사 지일 스님 이후 前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현 방장 성파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주장자를 전달했으며, 전람회에서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에게 주장자를 선물한다. 또 앞서 출간한 책 〈주장자〉 출판기념식을 함께 열어 못다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책 〈주장자〉에는 △주장자의 의미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선사가 담은 주장자 이야기 △경전 속 주장자 이야기와 설화 △경봉 스님, 성철 스님, 성수 스님의 법문이 담겨 있다. 전람회 수익은 양산부산대병원 어린이병원 환우 치료비로 전달된다.

인오 스님은 통도사 근암당 지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학, 위덕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조사국장, 통도사 호법국장, 울산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원광사 주지로 나눔과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음으로 찬탄하는 부처님 가르침

영도구불교聯, 4월 13일 영도구불교합창제

화합의 하모니로 봉축을 알리는 합창무대가 열린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13일 오후 6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영도구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영도구불교합창제는 봉축을 맞아 합창으로 화합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합창 무대에는 미룡사 바라밀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 합창단이 참가한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가 4월 13일 '영도구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합창제 모습.

합창제는 어린이 3중창과 해금무대로 시작해 1부는 불법의 내용을 담은 찬불가와 선법가를 주제로 각 사찰이 무대를 꾸민다. 곡은 '얼음위의 반가사유' '지혜와 자비로 부처님 같이'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등 7곡이다. 이어 2부에서는 흥겨운 대중음악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물한다. 곡은 '날 봐 귀순' '아모르 파티' '무지개 저 너머로' '오즈의 마법사' '마징가Z' 등 9곡이다. 보체(VOCE) 남성 앙상블의 게스트 무대와 출연팀이 연합으로 부르는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무대가 마무리된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합창단을 통해 울려퍼지는 화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해주신 진리를 다시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석산개발에 수행환경 침해 '시름'

내소사 인근 고령토 채굴
석산개발 인가신청 접수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부안 내소사 인근에 고령토 채굴을 위한 석산개발인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내소사와 부안 진서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지장암 일지 스님, 하윤기 진서면 이장단협의회장 등 주민 100여 명은 4월 2일 진서면 운호리 석산개발 현장에서 '고령토 채굴 석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안군과 전라북도는 석산개발 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채굴계획인가 신청 지역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36-11번지 외 4필지다. 변산국립공원과 내소사와는 직선거리로 수백미터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고령토 석산개발이 진행될 경우 바다를 낀 해안관광도로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내소사 수행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내소사 인근 석산개발 인가신청을 도청이 반려할 것을 스님과 지역민들이 촉구하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고령토 석산이 개발될 경우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 분진과 소음 등으로 내소사 봉래선원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진서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령토 석산개발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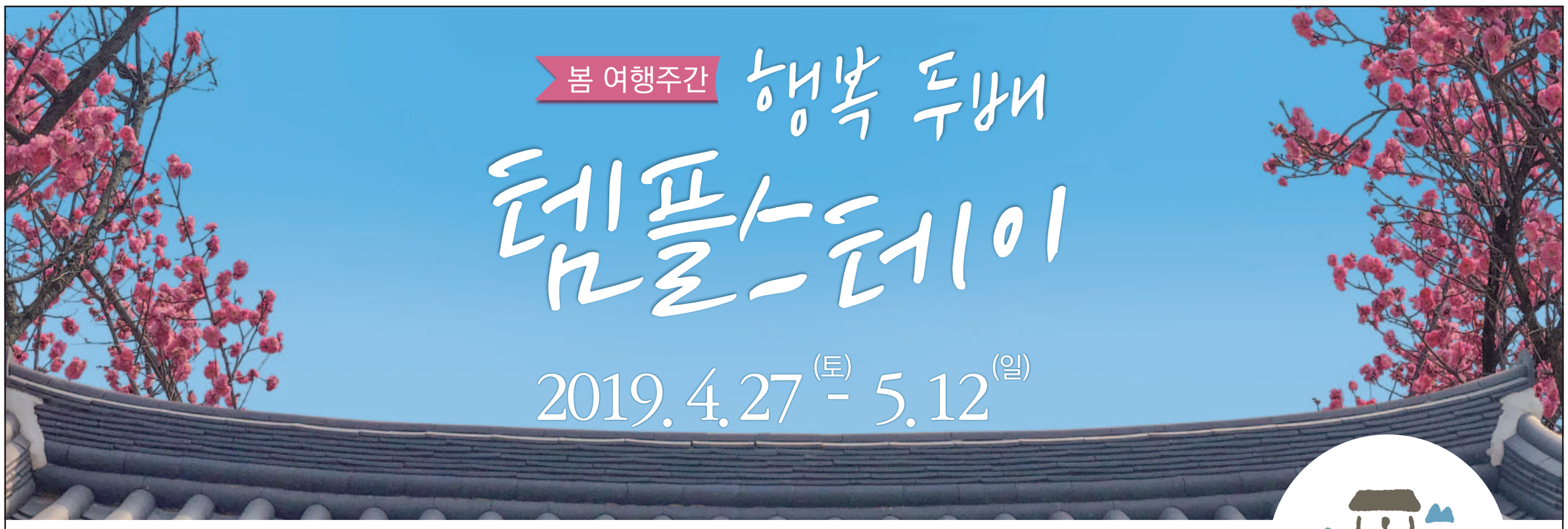
하윤기 이장단협의회장은 "고령토 채굴은 핑계에 불과하고 석산개발로 얻어지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고령토 개발을 하려는 부지는 부안 관광의 중심지다. 채석강과 천년고찰 내소사를 잇는 해안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발파진동과 분진, 수시로 출몰하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주변상가의 피해는 물론 천혜의 관광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고령토 석산이 개발되면 천일염을 생산하는 곰소염전, 곰소 젓갈단지는 물론 일반 주민들 건강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오지 않는 부안은 죽은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석산개발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2월말 전북도청에 부안지역 고령토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라북도가 현재 부안군청에 관련법령 협의를 요구한 상태이며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전북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고령토 개발을 신청한 업체는 충남 부여에 소재한 업체로 이미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내소사 입구인 석포리 일대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종전에는 진서면 석포리 지역에 신청을 한 반면 이번에는 운호리까지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난해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 생명나눔실천본부 봉사자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생명나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① 왜 '생명나눔' 인가

1969년 3월 24일. 이 날은 한국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수술이 집도됐다. 서울 명동 성모병원이 한국 최초로 장기 이식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신장이 망가진 재미교포였고, 미국에서 신장을 구하지 못해 한국에 들어와 어머니의 신장을 기증받아 수술한 것이다.

이후 1970년대 면역 억제제 개발과 함께 뇌사자의 신장과 간이식까지 연달아 성공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장과 폐, 소장까지 이식이 가능해졌다. 2011년에는 여러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할 정도로 장기이식술은 꾸준히 발전해왔다.

한국의 장기이식술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지만, 정작 한국 생명나눔 문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할 의사는 있지만 정작 장기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2.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기증률도 줄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2001년 1100여 건에서 2016년 44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018년 4100여 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7년부터 뇌사자에 대한 가족의 장기 기증 동의 비율이 42%로 줄었고, 뇌사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동의했어도 다른 가족이 거부해 장기 기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10%에 달한다.

현재 근본 치료가 없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는 환자는 2만 7천여 명. 하루 평균 3.4명이 이식받을 장기를 끝내 구하지 못해 숨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생명나눔'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신의 생명을 통해 꺼져가는 다른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현 시대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자비행이다.

'생명나눔'에 대한 불교적 근거는 부처님 전생담으로 알려진 〈자타카(본생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비(尸毘)왕 본생담이 대표적이다. 시비왕이 산책을 하던 와중 품 안으로 매에게 쫓긴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시비왕은 비둘기를 숨겨줬고, 매는 시비왕에게 비둘기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왕은 이를 거절했고, 매는 "나는 비둘기를 못 먹으면 죽는다. 내 생명은 소중하지 않는가. 비둘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만큼 살코기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 장기기증 성공 50년 맞았지만
희망등록 2% · 실기증도 감소 추세
조혈모 기증 · 자살예방 · 헌혈 등
생명 나눌 수 있는 자비행 많아
'본생담'서 생명나눔 典範 확인

이에 시비왕은 한 치 망설임도 없이 비둘기 몸무게 만큼의 허벅지 살을 잘라 저울에 올렸지만, 저울의 눈금은 비둘기 쪽에 향해 있었다. 자신의 양팔, 다리, 엉덩이를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의 무게가 더 나갔다. 결국 시비왕 자신이 저울에 오르고서야 무게의 균형이 맞았다.

이는 사람이나 비둘기나 모두 같은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를 깨달은 왕은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 비둘기를 구했다.

자비는 본래 '자(慈)'와 '비(悲)'로 나눠진 말이다. '자(慈)'는 생명 있는 모든 일체중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비(悲)'는 불행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불교 윤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 즉 중생(衆生)의 윤리라는 점을 특색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자비 사상은 일체의 차별적 사고방식을 배제한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자비 실천으로서 생명나눔은 연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좋은 밑바탕이 된다.

'생명나눔'은 장기기증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해 보면 조혈모세포 기증과 헌혈, 자살예방도 범주에 들어간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에게 필요한 이식으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만 이식이 이뤄지면 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기증 후 2~3주 이내 회복이 가능하므로 기증자의 혈액세포 생성 능력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평소 꾸준히 헌혈을 하며 헌혈증을 모으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도 응급환우를 살리는 일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헌혈율은 5.7%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 않으나, 10~20대에 몰려있고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자살예방 역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는 범불교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저서 〈행복한 빈손〉에서 생명나눔 운동의 정의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스님은 "생명공양이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비심을 실제로 베푸는 것"이라며 "말 못하는 곤충이나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비심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이며, 이를 현 사회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생명나눔실천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명나눔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고통으로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이 많다"며 "나 뿐만 아니라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생명공양이며, 이것이 실현될 때 이 땅에 불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유일 생명나눔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행복한 회향 원한다면

장기기증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증 공여 등 불교계 생명나눔운동 전면에 나서고 있는 단체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유일하다.

1994년 생명공양실천회로 시작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 교육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사업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과 부산, 경남, 대구, 제주도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불자들과 시민들에게 생명나눔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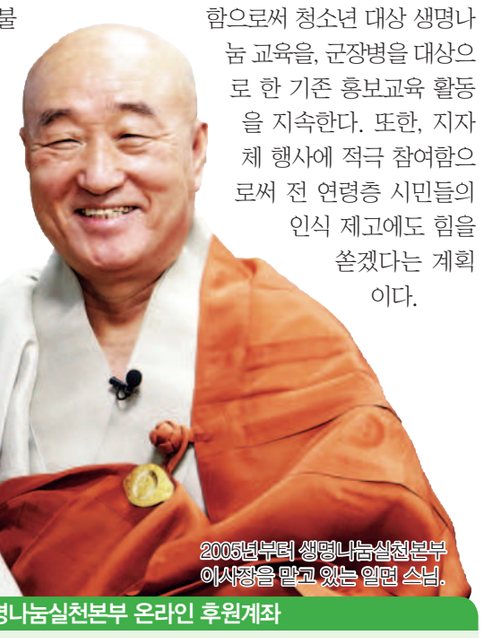
20여 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사람은 6만7148명(4월 4일 현재)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5,000명(조직기증 2,500명)의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계획 중이다. 또한 조혈모세포는 2,889명을 모집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52명이었던 조혈모세포 실기증자를 60명으로 확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생명나눔 자비 모금회가 신설 운영되며 생명나눔 희망골든벨 퀴즈도 확대한다는 게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계획이다.

신규사업인 '생명나눔 자비 모금회'는 지원대상을 불자로 특정된 의료비 후원 사업으로, 본부 측은 현장 캠페인 때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비모금 홍보를 병행한다. 사업팀은 매월 초하루 또는 사찰 행사시 먼저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을 방문, 신도 대상으로 후원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주제로 한 '생명나눔 희망골든벨'은 올해 전국 3~5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된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은 신청 연령제한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연소자 등 등록예정군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게 핵심적이다.

이밖에도 생명나눔은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생명나눔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생명나눔 교육을,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기존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지자체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 연령층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2005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면 스님.

4월 생명나눔과 함께 하세요

군장병 대상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교육
- 날짜 : 4월 28일(일)
- 장소 :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 4월 30일(화)
- 장소 :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하는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 캠페인
- 날짜 :상시운영(금요일 제외)
- 장소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1층 로비

부산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착한릴레이
- 날짜 : 4월 8일(월) ~ 4월 12일(금)
- 장소 : 부산 동아대 · 동의대학교
- 날짜 : 4월 29일(월)~4월 30일(화)
- 장소 : 부산 동명대학교

생명나눔실천본부 온라인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1-764580	우 체 국	010579-01-001564
국민은행	006-01-0770-038	농 협	053-17-001346
우리은행	010-073780-13-101	환자돕기(농협)	053-01-243778
기업은행	024-037428-01-016	신도등록(농협)	301-0044-4629-71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제12회 희망 걷기대회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는 생명존중문화 나눔의 축제.
제12회 희망걷기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녹음이 어우러진 싱그러운 5월의 남산 숲길을 거닐며
바쁘게 달려온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세요.
우리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희망의 메세지가 될 것입니다.

2019.05.19(일) 오전 9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 참가 기부금
-성인 : 오천 원 / 중 고등학생 : 무료
백혈병, 난치병 등 중증환자들의 치료비로 쓰여집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 - 001 - 764580

조선 원찰, 포교 중심으로 거듭나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⑦ 조선 최초 원찰 흥천사(興天寺)



정릉 원찰인 흥천사는 정릉의 이전에 따라 정조18년 현재 위치로 옮겨 중창됐다. 정릉의 부침에 따라 흥천사도 쇠락과 중흥의 시기를 겪었다.

신덕왕후 원찰로 건립된 흥천사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게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姜氏)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은 즉위 한 해 전 죽었고, 둘째 부인만이 조선왕조 최초의 왕비가 되었다. 강씨는 건국이란 힘든 시기를 함께 한 까닭에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왕비가 된 지 4년 만인 태조 5년(1396) 8월에 죽었다. 조강지처를 잃은 태조는 안타까운 마음에 능을 경복궁 서남쪽 가까이 조성하고 묘호를 정릉(貞陵)이라 하였다.

태조는 왕비의 극락왕생을 위한 원찰을 창건하였다. 그것이 흥천사이다. 태조의 원찰 창건은 정치적 모험이었다. 왕조의 이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유교가 국시(國是)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도성 안에 사찰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새로운 왕조 첫 번째 왕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조는 흥천사 창건에 관심이 많았다. 태조는 5년(1396) 12월 흥천사 공사 현장을 찾아가 인부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6년(1397) 2월에도 흥천사 역사를 찾았다. 그런데 본인의 뜻과 어긋나게 사찰의 공사는 점점 커져갔다. 태조는 정릉에 조석 향화(香火)을 받들기 위해 절을 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환관(宦官) 김사행(金師幸)이 잔재주를 보였다. 태조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흥천사를 사치스럽게 하였다.

흥천사는 태조 6년(1397) 10월 상의중추원사 최용소를 흥천사에 보내어 소재 법석을 베푼 것으로 볼 때 이 무렵 낙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흥천사가 세워진 곳은 서부 황화방(皇華坊)이다. 황화방이 어딘가. 그곳을 알려면 영조 때 기록을 참고해야 한다. 영조 45년(1769) 11월 임금이 황화방 명례궁(明禮宮)에 거동하였다고 전해진다. 명례궁은 인조가 즉위한 곳으로 본래의 이름은 경운궁(慶運宮)이었다. 이곳이 고종이 순종에게 선위하고 머물면서 덕수궁이라 하였다. 정릉과 흥천사 모두 이 부근에 있었던 것이다. 현재 그곳이 정동(貞洞)인 것도 능 이름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흥천사는 처음부터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조선 최초의 원찰이며 170여 간이나 되는 대가람이었다. 능조차 도성 안에 두려했던 태조의 지극한 사랑이 담겼으니 당대의 최고였을 것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 압권은 정종1년(1399) 10월에 조성된 사리전(舍利殿)이었다. 5층으로 지어진 사리전은 크기도 웅대하고, 그곳에 올라가면 경복궁이 잘 보였다. 세종 5년(1423) 사신이 흥천사를 구경하고 사리전 높은 곳에 올라 경복궁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산세나 물 흐름이 모두 음양의 이치에 맞으니 참으로 하늘을 만든 도읍이다"고 하였다.

조선 초 흥천사에서 행해진 불사

배불의 조선이었지만 흥천사에서는 많은 불사가 행해졌다. 태조 7년 7월 우란분재를 베풀었다. 이후에는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던져버리고 함흥으로 가는 바람에 더 이상 자신이 불사를 지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이 상왕과 태상왕으로 있었던 정종, 태종 때에 이곳에서 불사를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정종 1년 10월에 흥천사의 사리전이 낙성되자 태조는 이곳에 와 수륙재를 베풀었다. 선왕(先王), 선비(先妣), 현비(顯妣), 죽은 아들들과 사위, 그리고 고려의 왕씨(王氏)를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정종이 왕위를 선위하고 태종이 즉위하며 경복궁으로 돌아간 뒤에도 개성에 머물렀던 태조는 태종 1년 대장불사(大藏佛事)를 베풀기 위해 흥천사에 행차하였다.

이성계 사후에도 흥천사 불사는 행해졌다. 태종 8년 5월 이성계가 죽었다. 태종은 7월 흥천사에서 〈원각경〉 법석을 베풀었다. 이성계는 죽을 무렵 유언으로 흥천사에서 〈법화경〉을 독송해 달라고 하였다. 그 뜻을 잊지 않은 태종은 11년 5월 흥천사에서 승려 50인을 불러 3일 동안 〈금자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청원군(靑原君) 심종(沈淙)을 불러 향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은 오늘 법석을 베푼 뜻을 아는가? 우리 황고(皇考) 태조께서 도읍을 여기에 세우시고 사리전을 설치하시므로, 나와 이인수가 그것을 준공하였다. 근자에 들으니 탑이 기울어져서 위태롭다 하기에, 그것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마침 기신(忌晨)을 만났으니,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를 위하여 법석을 베푸는 것이다."

> **건국 이념 조차 막지 못한**
> **정릉 일대 원찰 불사**
> **억불숭유의 아픔 간직한 곳**

흥천사는 신덕왕후 강씨의 원찰이었다. 그렇지만 태종에게 강씨는 계모였고 정적이었다. 힘들여 건국한 조선의 왕위가 강씨의 소생 방석에게 넘어갈 뻔하였다. 아버지 태조의 유언을 따라 법화경을 독송하였지만 강씨는 빠지고 친모인 신의왕후 한씨를 위한 법석으로 바꾼 것이다.

3. 흥천사의 시련

임금의 사랑으로 크고 화려하게 시작한 흥천사이지만 조선조의 배불의 세파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 정종과 태종은 부왕이 살아있는 관계로 흥천사를 홀대할 수 없었다. 태조 사후에도 흥천사를 수리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세종 때 이르러 상황은 달라졌다. 태조의 유훈도 알지 못하고, 관리들의 요청과 자신의 뜻에 따라 배불정책을 추진하였다. 세종은 7년(1425) 흥천사의 종을 남대문에 옮겨 달게 하였다. 종을 문루에 다는 것은 시간을 알리기 위함이다. 관리들의 출근이 늦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흥천사 종을 떼다가 문루에 달고 활용한 것이다.

세종은 아쉬울 땐 흥천사를 이용하였다.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낼 때는 이곳에서 하였다. 세종 15년(1433) 창덕궁 문소전에 있던 내불당을 정리할 때 불상과 불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물론 흥천사를 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왕들이 아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 17년(1435) 가뭄이 들자 비용 문제로 흥천사의 역사를 정지하게 하는 등 관심 밖에 두었다.

그밖에도 종파 축소, 참배 금지 등이 계속되었다. 그런 조치로 폐사에 이르지 않았지만 화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연산 10년(1504)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급격하게 쇠락해졌다. 그나마 화마를 모면했던 사리전은 중종 5년(1510) 3월 28일 흥천사의 보물과 경문을 훔치던 유생들의 방화로 전소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중종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7년(1512) 성 안의 흥덕, 흥천, 원각 등 세 폐사의 땅을 사대부들에게 갈라주자는 대간의 건의에 따라 흥천사 땅을 나누어 주었다.

정릉과 흥천사의 복원

흥천사는 정릉의 원찰로 지어져 화재로 사라졌지만 정릉 때문에 다시 생겨날 수 있었다. 왕후는 자신의 막내를 세자로 책봉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왕자의 난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하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자신도 파헤쳐 도성 밖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당했다.

태종 8년 5월 아버지 태조가 죽자 태종은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왕후를 9년(1409) 삼각산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의정부에 명하여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기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었다.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태종은 그대로 따랐다. 뿐만 아니라 조석전(朝夕奠)과 삭망제(朔望祭)를 없애고, 춘추의 두 중월(仲月)과 이름이 있는 날에 2품의 관리를 보내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왕릉의 석물은 광통교가 무너지자 수리에 사용되었다.

왕실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정릉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선조 14년(1581) 양사가 정릉에 전례에 따라 제사하는 일을 청하면서 다시 부각되었다.

"정릉을 한번 옮긴 후에는 전례(典禮)도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본시 그 당시 일을 맡은 자의 잘못이었습니다. 어찌 선왕의 본의이겠습니까. 후손의 처지에 있어서는 마땅히 서둘러 폐지 추락된 예를 분명히 닦아 우리 선후(先后)를 받들어 모심으로써 깊이 백년의 원한을 씻고 크게 신인(神人)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옛날 역사를 증빙해 보더라도 어긋나지 않으며 장래의 성인을 기다린다 해도 의혹하지 않을 것인데 전하의 선조를 추모하시는 마음에만 유독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조는 윤허하지 않았다. 이후 정릉은 현종 10년(1669) 송시열 등의 청원으로 왕후의 제삿날을 새삼 기리면서 자연히 원찰도 논의되었다. 정릉 앞에 있는 신흥암이 능과 너무 가깝고 작아 조금 떨어진 함취정(含翠停) 터로 옮기고 신흥사(新興寺)라 하였다. 이름은 달랐지만 원찰은 복원된 것이다.

정조 18년(1794)에 성민(聖敏)과 경신(敬信) 두 스님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창하였다. 이후 신흥사로 불리다가 고종 2년(1865) 흥선대원군이 중창불사를 지원하면서 원래 이름인 '흥천사' 편액을 내렸다. 지금 만세루에 걸려있는 편액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흥사로 불렀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 주변 식당은 회갑잔치가 빈번하게 열려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요릿집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요즘 지역안내서와 인터넷에 흥천사로 소개되고 부르고 있어 본래의 이름을 찾은 듯하다. 사격 역시 점점 정비되면서 강북의 포교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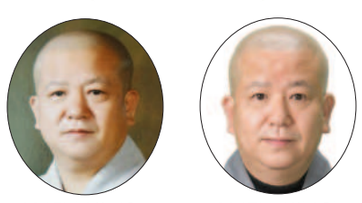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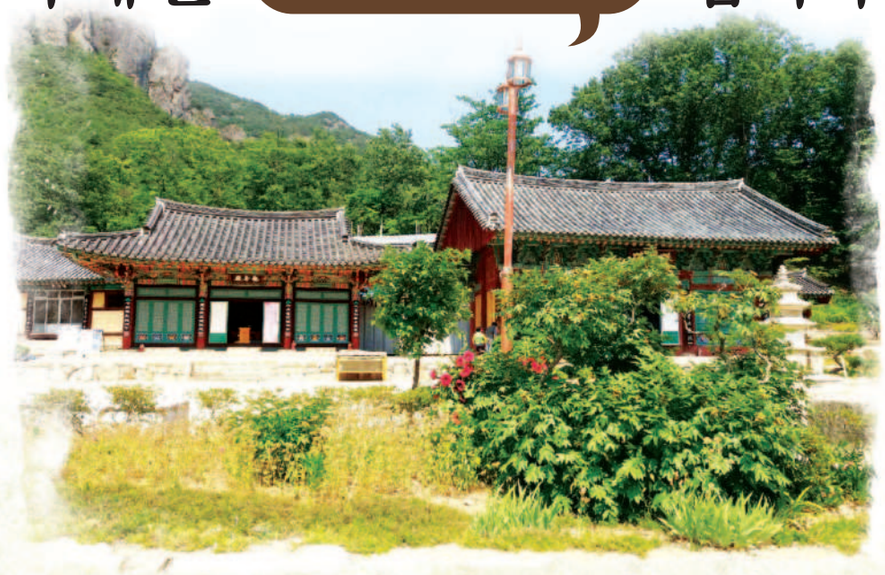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무아에서 또 다른 나를 얻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⑦ 모두 리셋 하고 싶다



그림 · 박구원

그녀는 '나를 바꾸고 싶다' 고 했다.

"성급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싸움닭 같은 내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데 이 조직에서는 힘들어요. 리셋 하듯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30대 후반의 웹디자이너 은옥 씨는 6개월째 전직을 위해 여러 군데 경력직으로 응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두 군데는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다 계약을 하지 않았다. 연봉이 높으면 업무 비중이 과하게 여겨졌고, 근무환경이 괜찮다 싶으면 대우가 흡족하지 않았다. 업무의 성격, 직무 환경, 통근 거리 등의 조건을 그녀가 말할 때마다 무엇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지 그 기준이 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코치는 알아챘다.

이럴 때는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직장을 바꾸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여기가 첫 직장입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녔더니 자극도 없고 모든 게 너무 익숙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일까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사무실 분위기도 달랐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새로운 얼굴이면 좋겠어요."

은옥 씨가 변화를 말할 때 세 번이나 되풀이한 키워드는 '지금과는 다르다' 이다.

-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만 바라봅니다. 회의를 할 때도 내 지시만 기다려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말하는 팀원이 없어요.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자니 힘들고 재미도 없고 늘 마음만 쫓깁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는 듯이.

- 그런 생각을 팀원들은 알고 있을까요?

" 몇 번 얘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은옥 씨는 학교 선배가 창업한 웹 개발업체의 수석 디자이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업계에서 오너와 함께 영업부터 디자인 실무까지 진두지휘하며 회사를 키워왔고 어디 가도 통할 만큼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 과정은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필요로 했고, 그녀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몇 년 전부터 심한 피로와 외로움이 밀려왔다.

"회사 업무가 아닌 일상에도 그런 성격이 배어나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일이 없어 노닥거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에도 늘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긴요한 약속이 아닌데도 교통체증으로 늦게 되면 곧바로 초조해져요. 학생 때는 독서를 좋아해 늘 핸드백에 책을 넣어 다녔는데 업무 참고용이 아닌 책을 읽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일하기보다, 경쟁하고 싸우는 데 익숙한 내 모습에 스스로 지치고 흉하게 느껴져요. 뭘 바라며 이렇게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일 중독자 솔로로 40대를 맞을 것 같아 끔찍합니다."

- 변화된 후를 상상해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는 차분하고 사람들과 기분 좋게 소통하고 회사 일 말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주말에는 여행하고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급하고 어디서든 참지 못하고 나서는 해결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무아의 수많은 나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변화를 바라는 내가 있다.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싶고, 내가 있는 장소의 색깔과 느낌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대화를 나누는 얼굴도 다른 모습이고 그 대화의 내용도 달랐으면 좋겠다.

변하고 싶을 때 갈등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할까? 살아온 시간이 얼마인데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봤자 본질이 어디 갈까. 사람은 안 변한다잖아.

이럴 때 깨우치라는 붓다의 가르침이 무아(無我)이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불변하는 실체인 나는 없다는 것이다. 〈무아경〉에 따르면, 인간의 물질과 정신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자각하지만 그 의식과 느낌이 실제 변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아니다.

변하고 싶을 때 갈등 시작돼
조건에 따라 '나'의 상태 달라져
무아 · 연기의 세계에 끌어들여
주변의 존재도 함께 변화를…

무아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고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다. 주변의 조건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때마다 모습이 다른 나로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무아를 받아들인다면, 나를 둘러싼 수많은 거울에 각기 다른 내가 투영된다.

무아는, 연기(緣起) 법과도 맥이 닿아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존하여 상호 작용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 일정한 움직임과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많은 내면의 나는 어떤 조건과 만났을 때 보이는 나가 된다. 나무가 햇빛과 물과 바람의 조건과 성질을 받아들여 초록으로 빛나고 저마다 꽃을 피우듯이 내 안의 모든 성질도 수많은 나를 둘러싼 모두를 받아들인 결과다. 자연이 나무를 채워 꽃을 피우듯이 나도 주변의 많은 이들과 상호작용으로 나의 모습을 채우고 형성하여 거울에 보일 것이다.

나를 바꾸어 다른 그들을 만나는 방법

막히는 길마다 늘 붓다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길이 나타난다.

다시 은옥 씨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녀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자기를 둘러싼 조건과 연기의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력 있게 행동해야 했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과를 내야 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에 매달려서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깊은 교감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그녀는 저돌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했고 이런 모습은 사무실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이런 모습을 은옥 씨는 자신의 실체라고 여기게 되었다. 다른 모습을 거울에서 한 동안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 속에 수많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자신을 보고 싶어졌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과 조건 지워진 모든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지금 여기를 떠나야만 자신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은 오랜 시간 보아온 나의 모습만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늘 해오던 방식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판단하겠지요. 스스로 답을 구하라고 해도 내가 답을 줄 때까지 아무런 논의도 결정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겠죠. 책임도 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출근하면 팀원들에게 할 일을 확인하며 채근하기 전에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좋은 하루가 되자고 말하겠어요. 한 사람씩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먼저 말하도록 물어보고 싶네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서 가끔 되묻거나 확인하는 정도로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오, 떠올리니 멋지네요! 그들이 더 나은 길을 찾도록 돕는 리더로서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은옥 씨에게는 다른 선택도 있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바꿈으로써 자신과 상호 의존으로 나타날 주변의 존재들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들을 무아와 연기의 세계로 적극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 이 직장에서 변화를 먼저 시작한다면 어떠세요? 그들도 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답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던 질문이었다. 침묵하며 생각하던 그녀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겠다고 말했다.

-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은옥 씨는 미션을 선언문으로 정리했다.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경청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해결책을 먼저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면서 돕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3개월을 지나보고 팀원들의 태도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새 직장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 그 밖에 자신을 위해 해보고 싶은 건 없나요?

"하루에 한 시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 때리며 있고 싶어요, 그냥 햇빛과 바람에 몸을 맡기고 하품을 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어제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면 어떤 나가 진짜라고 고집할 수 있을까.

그녀의 또 다른 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3개월 뒤 리마인드 코칭을 약속하고 우리는 '나를 바꾸기' 코칭 세션을 끝냈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종교인과세 및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

신/고/대/행 안내

!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급여(개인적으로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해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세무확인서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2019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교인

- 2018년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종교인
- 2018년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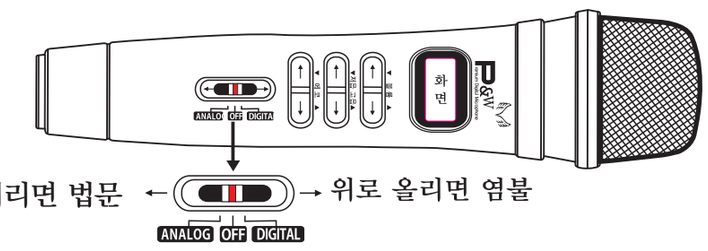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세무확인서 제출

- 종교단체에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기부금)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T 051-996-0308 F 051-955-2129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원톱시스템이란? : 한 번에 최고의 소리 시스템



아래로 내리면 법문 ← → 위로 올리면 염불

ANALOG OFF DIGITAL

오직 앰프 내장 마이크 하나만으로 마이크 2개 기능 동시 사용

앰프 내장 마이크 자체에서 마이크 2개 기능과 음량, 음질, 음색, 에코 조절 기능이 있어 법당 현장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가며 설법, 염불을 함으로 수 천번 염불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생 보물

▣ 현장 방문시 마이크만 가지고 일초에 구슬픈 소리, 장엄한 소리, 설법,소리 크게 작게 등 다양성을 보여 드림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연기 알면 변화가 일어난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⑦ 연기의 꽃, 12연기



그림 · 강병호

고등학교 시절 불교를 처음 알았을 당시 어느 토요일 경주 분황사에서 저녁을 먹고 예불을 올리게 되었다. 부처님께 예불을 올린 후 스님께서 축원하는 데 너무 황당하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과 동물과 모든 생명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축원 올리는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기도가 얼마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연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인연과' 에서 인을 끝없이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가치 기준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무아에 대한 인식에서 생기는 연민 때문에 상대방이 60점짜리라도 기분이 좋은 것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연민 밖에 없다. 60점짜리 우리의 삶을 보고 부처님은 끝없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90점짜리에서 60점짜리로 가치 기준을 하향시켰을 때 변한 것은 그 점수가 아니라 무상에 대한 인식 때문에, 연민 때문에 60점 되는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가 지옥을 싫어하겠는가. 지옥에 가도 부처는 부처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인이 확실하면 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확실히 부처이면 주위가 지옥이라도 모두 부처로 변하게 된다.

무엇이 잘 안되면 상대를 탓한다. 내가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면 탓할 대상이 없다. 연민인 끝없는 자비밖에 없는 것이다.

부처의 속성은 자비광명

만약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자신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면 그 상대방이 불쌍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비가 나온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면 일어나는 것은 자비광명뿐이다. 끝없는 광명과 자비가 일어나게 된다.

제대로 된 불자는 어디에서 살던 상관이 없다. 1천 년 전도 좋고, 지금도 좋고, 1만 년 후도 좋고 어느 시기에 나타나도 똑같은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부처이면 태어나는 시기도 태어나는 시대도 태어나는 곳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부처되어야 하고 내가 바뀌어야만 연이 끝없이 바뀌는 것이다.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을 감동하게 하면 세세생생 그 인연을 잊지 못할 것이다. 세세생생 그 선생님을 따라 다니며 좋아할 것이다. 감동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문제를 이해하면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하다.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것이다. 그런 감동을 받는 학생은 선생님을 평생 존경할 것이다.

연기가 거시적인 현상에서 볼 때는 인과법칙이고, 인과법칙을 좀 더 풀어쓴다면 인연과의 법칙이다. 연기의 문제에서 변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인의 주체가 변해야 된다. 결국 주체인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다. 인식하는 것만큼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 **부처가 됐을 때 얻는 이익은**
> **세속적인 이익보다 더 크다**

의가 부처되게 한다

부처님께서 연기는 곧 무아와 무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다. 무상과 무아를 인식하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적정이다. 그 관계의 이해가 바로 연기이다. 연기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달라져 있고 주위가 달라져 있다.

연기에서 '안이비설신의' 를 설명했다.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이 '의' 때문이다. '의'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연기이며 모든 것은 '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번식해야 될 시기가 되면 새끼를 낳는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 활동은 먹고 자고 번식하는 세 가지 밖에 없다. 그냥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의지가 없으면 맛있는 빵이 있을 때 나중에 먹기 위해서 서랍에 넣어 두지 않는다. 개에게 빵을 먹으라고 주면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아무리 맛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으며 또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자기 집에 넣어두지 않는다. 또 피곤하면 자고 잠이 안 오면 자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도 안 자려고 애를 쓰면서 하루에 4시간 자고 버티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 때문이다. 동물은 번식을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는다. 발정주기 외에는 일체 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먹는 것에서 탐심이 생기고 생식에서 진심이 생기고 자는 것에서 치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다 의 때문에 생겨난다. 의를 이해하면 우리 몸뚱이가 갖고 있는 탐진치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게 된다.

연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인연과' 에 의해서 내가 바뀌면 주위가 바뀐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연기의 핵심은 12연기

연기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12가지 속성인 12연기를 말씀하셨다. 오온연기나 12연기가 만들어지는 체제와 구성을 생각해보면 부처님 은혜에 탄복할 뿐이다. 인간의 정신능력에서 생기는 12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불자가 될 수 있느냐' 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면 풀린다. 우리도 12처부터 시작해서 6근, 6경, 6식을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쳤던 방법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오늘 배우는 12연기의 처음은 무명이다. 불교의 첫 출발은 무명이다. 무명 다음에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가 12연기이다. 12연기에서 왜 죽어야하는 문제는 노사때문에 있다. 왜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바로 앞에는 생이 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왜 태어났느냐? 바로 존재할 수 있는 인연이 성숙되어 태어나게 된다.

[무명]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정견이 아닌 부정사유에서 무명이 생기며 그 다음 행이 일어난다.

[행] 행은 잠재적 형성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는 카오스라고 했다. 혼돈이다.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생긴다. 무명, 모르는 것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다. 카오스를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형성력, 만들어진 것, 만들어내는 힘, 이것이 바로 행이다. 나의 저장 창고에 들어 있는 업을 조합하여 다른 차원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행의 능력이다.

[식] 무명에 의해서 행이 생기고 이 행에 의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식은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인식작용, 또는 인식판단의 주관적인 능력이 된다. 우리는 6식으로 판단을 한다.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6식을 느낀다.

[명색] 식이 생기고 나면 명색이 되고 명은 '라마루파' 로 생각을 일으키는 환경이라든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인 오온이 바로 명색이 된다. 이 때 명은 수상행식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능력이고 색은 물질 즉 육체를 나타내며, 육체와 정신을 통틀어 명색이라고 한다.

[육입] 육입은 6경의 환경을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이다. 명색이 세분화 되어 감지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체인 육근을 만드는 근원적인 능력이 육입이다.

[촉] 6근인 눈, 귀, 코, 혀, 몸, 뜻을 바탕으로 해서 촉이 일어난다. 부딪치는 자체가 촉이다. 눈으로 부딪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 근과 경과 식이 촉하여 수가 생기게 된다.

[수] 촉에 의하여 수가 생긴다. 접촉의 결과로 발생되는 느낌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 느낌에 의해서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생긴다.

[애] 이런 느낌의 결과를 애라고 한다. 느낌과 감정의 결과로 생기는 갈애, 탐심과 진심이 생기는 것이 바로 애이다.

[취] 애욕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인 취가 생긴다. 취는 곁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용이다.

[유] 집착 때문에 이 몸둥이가 만들어지며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는 생존, 미혹한 생존, 윤회하고 있는 생존, 욕망충족의 행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유이다. 태어나는 것은 생유이며,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는 것은 본유이며, 죽는 것은 사유이다. 죽어서 다시 몸을 받는 그 기간을 중유라고 한다. 이때의 상태를 중음이라 한다.

[생] 유로써 존재를 마치면 우리는 다시 새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생이다.

[노병사]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이다. 병은 늙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것으로 12연기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

불교란 무엇인가,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내가 불성을 갖고 있는가? 무아와 무상 그리고 연기는 불교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부처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가 됐을 때 얻는 이익은 세속적인 이익보다는 훨씬 더 크다. 세속의 이익은 내가 부처되고 난 뒤에 받는 이익의 부분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깨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인과 연의 문제에서 인이 바뀌면 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이것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내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뀐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면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바뀌는 않는 이유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연기를 알면 바뀌지 말라 하여도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영남대 의대 교수〉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



新 불교사자성어

⑬ 구시화문(口是禍門)

'구시화문(口是禍門)' 이란 "입은 바로 화(재앙)를 불러들이는 문이다"는 뜻이다. 말조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로, 야운 스님의 '자경문' 에 나오는 말이다.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화종구생(禍從口生)도 같은 말이다.

말조심에 대해서는 인류사 이래 많은 금언(金言)들이 있다. 시시한 글보다는 이러한 금언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가슴에 와 닿는 금언 몇 개를 뽑았다.

"개는 잘 짓는다고 해서 좋은 개가 아니며,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인이 아니다." -장자-

"말 잘하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 -공자, 논어-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탈무드-

"말이 많으면 몸을 해친다." -노자-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이다." -포킬리데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한국 속담-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 -예기(禮記)-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말라." -이탈리아 속담-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D. 카네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빚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목숨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말이 야박하거나 각박하면 평생 불목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것이 말이다. 대수롭지 않게 뱉어낸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이다.

말은 브레이크 같은 제동 장치가 없다.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잘못된 말을 했다면 순간의 실수이므로 사과하면 되지만, 사과했다고 해서 백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말은 인격에 득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린다. 타인에게도 많은 상처를 준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한다.

고려 말 야운 스님(野雲, ?~1340)의 '자경문 3(其三)' 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口無多言, 身不輕動)." 〈중략〉 입은 재앙을 초래하는 문이니 더욱 엄하게 지켜야 한다. 몸은 온갖 재앙을 일으키는 근원이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그물에 걸리게 되고 부질없이 다니는 짐승은 화살을 맞게 된다."고 하며 말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십어구중 불여일묵(十語九中 不如一默)' 이라는 말이 있다. '열 마디 말 가운데 아홉 마디 말이 옳더라도 침묵하는 것만 못하다' 는 뜻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말을 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말은 필요하다.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여 벙어리 귀신처럼, 소 잡아먹은 사람처럼 함구하고는 살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시민사회는 논의, 토론 사회로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도출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 부재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서운한 것, 불쾌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모든 정보도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다.

옛사람들은 '사람은 가벼우면 안 된다' 라고 하여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시했지만, 현대는 적당히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정을 막고 민주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말도 반복하면 의미가 퇴색해 버린다. 그런데 경솔한 말,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다면 인격에 의심을 받게 된다. 특히 남을 무시하는 말, 타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은 조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깝다가도 소원해 지는 것은 실은 서운한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이다. 오래도록 교우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너무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말, 언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물아일여의 소식

〈物我一如〉



격절록 강설

⑬ 백장불자화 5

[評唱 4]

後來黃蘗纔見百丈 丈問 "巍巍堂堂從甚麼處來" 蘗云 "巍巍堂堂從嶺南來" 丈云 "巍巍堂堂來為何事" 蘗云 "巍巍堂堂不為別事" 一日黃蘗謂百丈云" 暫別左右欲禮拜馬祖去" 丈云 "馬祖已遷化了也" 蘗云 "未審馬祖在日 有何言句" 丈遂舉再參因緣 黃蘗不覺吐舌. 但如此參 到至玄至妙處 隨分舉一毫 便蓋天蓋地 便能拈一莖草 作丈六金身用 將丈六金身 作一莖草用 天下人總不奈你何.

뒷날, 황벽(黃蘗)이 백장(百丈)을 뵈었는데, 백장이 물었다.

"외외당당(巍巍堂堂)하게 어디에서 왔는가?"

황벽이 말했다.

"외외당당하게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외외당당하게 와서 뭘 하려는가?"

황벽이 말했다.

"외외당당하게 다른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황벽이 백장에게 말했다.

"잠시 곁을 떠나 마조께 예배하러 가고자 합니다."

백장이 말했다.

"마조께선 이미 천화(遷化)하셨네."

황벽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조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백장이 재차 참례했던 인연(再參因緣)을 거론하자, 황벽이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밀었다(不覺吐舌).

다만 이와 같이 참구해서 지극히 현묘한 곳에 이르러야지, 분에 따라(隨分, 인연 따라) 한 터럭만큼이라도 거론하면 바로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 줄기 풀을 들어 장육금신으로 쓸 수도 있고, 장육금신을 들어 한 줄기 풀로 쓸 수도 있어야, 천하인이 모두 그대를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 줄기 풀을 들어 장육금신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①世尊與眾行次 以手指地云 "此處宜建梵刹" 帝釋將一莖草 插於地上云 "建梵刹已竟" 世尊微笑.

세존이 대중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곳에 마땅히 범찰을 세워라."

제석천이 한 줄기 풀(一莖草)을 들어 땅에 꽂고, 말했다.

"이미 범찰을 세웠습니다."

세존이 미소 지었다.(선문염송집 · 종용록)

②此事如明珠在掌 胡來胡現 漢來漢現. 老僧把一莖草 作丈六金身用 把丈六金身 作一莖草用. 佛即是煩惱 煩惱即是佛. 是漏心佛不二 物我一如之消息也.

이 일은 마치 명주(明珠)를 손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드러나고 한족이 오면 한족이 드러난다. 노승은 한 줄기 풀(一莖草)을 집어 장육금신(丈六金身)으로 쓰기도 하고 장육금신을 집어 한 줄기 풀로 쓰기도 한다. 부처는 곧 번뇌요, 번뇌는 곧 부처이다. 이 번뇌(漏心)와 부처는 둘이 아니며, 물아일여(物我一如)의 소식이니라."(조주록)

❋장육금신(丈六金身): 신장이 1장 6척이고, 피부색이 자마금색인 석전의 몸. 신장과 피부색으로 석존의 초인성을 표현하는 말.(선학사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⑬ 믿음 편 13

자비의 화신, 관음보살

한 조직의 리더가 참모의 구체적인 일까지 세밀히 챙긴다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야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직원들은 수장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리더는 조직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참모들이 마음껏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여 실수할 경우엔 그 책임까지 질 줄 알아야 한다.

서방정토의 수장인 아미타불은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이념과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핵심 참모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음보살은 중생들의 신음소리(世音)를 보고(觀)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관음은 늘 중생들의 고통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아미타불이 있기 때문에 일이 고단하지 않다.

관음(觀音)은 산스크리트어 '아바로키테슈와라(avalokiteśvara)' 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현장(玄奘, 602~664) 이전의 구역에서는 주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 신역에서는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이 두 번역이 함께 쓰이고 있지만, 불자들에겐 관음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관음보살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함께 아미타불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관음보살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통은 6관음이 일반적이지만, 33신(身)의 자유자재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6관음은 아귀를 구제하는 성관음(聖觀音)이 본신이고,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천수관음(千手觀音), 축생을 구제하는 마두관음(馬頭觀音), 아수라의 중생을 구제하는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준제관음(准提觀音), 천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등이 있다. 관음이 다양한 모습의 아바타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 〈관무량수경〉 등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자비심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자비심 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천수천안관음(天手天眼觀音)이 천개의 손과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십일면관음의 얼굴이 11개나 되는 것도 모두 중생들의 고통을 자세히 살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관음보살을 지성으로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나타나 구해준다는 믿음이 담겨있다. 이런 점에서 관음신앙 역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의 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

〈화엄경〉에는 관음보살이 향기로운 백화(白花)가 만발한 보타낙가(Potalaka 補陀洛迦) 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의 낙산은 보타낙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의상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이곳 바닷가 동굴에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낙산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상 역시 이 땅이 바로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낙산사를 비롯하여 강화도 보문사(普門寺), 남해 보리암(菩提庵) 등 유명한 관음도량이 많다. 관음도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관음보살의 주처(住處)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우리들이 자비심만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땅을 정토로 장엄할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이 잘 익어 가면 나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이 보인다고 한다. 불교의 위대성은 다른 이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관음보살이 때로는 물병을, 어느 곳에서는 호미를 들고 서있다. 자비의 화신다운 모습이다. 오늘도 나는 부처님 앞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세계에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 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 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 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 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만의 만남입니다 氣 giban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역민 감로수 청정도량 발원

밀양 석골사 해수관음 점안법회

밀양 석골사에 청정 감로를 상징하는 해수관음상이 나투었다. 2년 전 석골사가 오랜 가뭄에 힘들어 하는 지역민을 위해 기도하며 시작한 불사로 의미가 깊다.

밀양 석골사(주지 마벽)는 3월 30일 경내에서 '석골사 해수관음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서는 前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증명 점안식이 진행됐다. 공로자 표창에 이어 밀양불교사암연합 회장 법기 스님과 창녕불교연합회장 정안 스님이 격려사로 축하했으며, 박일호 밀양시장이 축사로 의미를 더했다.

2년 전 주지 마벽 스님 주지 취임 당시 석골사 계곡에 물이 마르고 가뭄이 심각했다. 이에 스님은 석골 계곡에 물이 풍족하게 하고 도량을 찾는 대중의 번뇌를 식히고자 해수관음보살 불사를 진행했다. 해수관음보살은 높이 4m 크기로 지난해 3월 불사에 들어가 1년여 만에 완공됐다.

마벽 스님은 "석골 계곡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번뇌를 식히고 맑은 물 한잔으로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력을 세웠다"며 "해수관음보살은 도량을 맑히고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불성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 말했다. 석골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44호로 등록된 전통사찰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템플스테이도 실감한 '박항서 매직'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템플스테이 부스 성황

템플스테이가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 매직'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3월 27~30일 하노이에서 열린 '2019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 박람회서 문화사업단은 일반인과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안내 및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단주와 연꽃 등 만들기, 템플스테이 VR영상도 선보였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의 성공 요인을 베트남 축구영웅으로 거듭난 박항서 감독 효과로 꼽았다. 문화사업단은 "박항서 매직으로 빚어진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불교에 대한 베트남 기본 정서 덕분에 5000명 이상이 템플스테이 부스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차의 마음 中正 세계와 나눕니다"

Interview

국제차문화축제 여는 보혜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중정(中正)은 차의 마음입니다. 찻잎과 물의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차인들의 마음이 어울리고 하나 되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려주는 현묘한 마음의 도리입니다. 기장에서 열리는 차축제는 차의 마음이 실현되는 장(場)이 될 것입니다."

차의 정신과 문화를 보여줄 문화축제가 열린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4월 20일 오전 11시 기장 정관공원 일대에서 '2019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은 "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자리를 펼쳐 참된 차 정신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축제는 먼저 세계 차인들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한국, 인도, 중국 등 각국 차인들이 참여하며, 허황후 헌다례를 중심으로 한 차 시연이 펼쳐진다. 허황후 헌다례는 △찻물 이운식(김해 허황후 왕릉 우물물 이운) △헌향 △헌무 △헌화 △헌시 △헌햇차 △100인 차인헌다시연 △500인 진다례 순으로 진행된다. 헌햇차는 올해 처음 잎을 따 만든 차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2019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4월 20일 오전 11시 정관공원
장엄한 차시연과 국제 차 교류

"인도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 인도 타타 그룹 아쌈지역 아쌈차 총지배인과 인연이 됐습니다. 총지배인 파털 쿠마르 보라(Parturl Kumar Bora) 외 12명이 축제에 방문하고, 한국 녹차를 직접 확인하며 교류 시장을 열 것입니다. 중국 자사호 팀은 자사호 제작과정을 보여주며 기장 도예가들과 소통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행사에서는 허황옥상, 수로문화상, 차성문학상을 제정해 다인과 문학인에게 시상하고 동행복지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정관, 기장 지역 우수학생 10명에게 총 300만원, 동명대학교 복지기금 1000만원을 전달한다. 어린이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선 일희다회 어린이 차시연, 인도어린이 전통춤 시연, 기장 리틀싱어즈의 공연도 마련되며 열린음악회와 문화전시회도 개최된다.

특히 사진가들을 위한 사진전도 공모한다. 주제는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 공모기간은 4월 20~29일 오후 6시까지다. 누구나 출품가능하며 이메일(chunbo@korea.kr)로 공모하면 된다. 출품료는 무료. 결과는 5월 4일 개별 통보되며 시상일은 5월 10일이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1인), 금상 50만원(1인), 은상 30만원(2명), 동상 20만원(5명), 장려상 10만원(20명 내외)이다.

"다도는 불교문화의 정점이자 전통문화의 대표입니다. 세계에 불교와 한국문화를 나누고 그들과 소통하며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한마당으로 발전할 겁니다."

한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새로운 문화동행관을 기장 교리에 새롭게 조성중이다. 보혜 스님은 이 공간이 "종교를 떠나 지역민을 위한 힐링처가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차 한 잔에 담긴 문화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이끕니다. 그 정신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전국 문화인들을 위한 교류의 꽃이 활짝 피길 기대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동행문화관은 현대인의 힐링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문화동행관은 기장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며 성인부터 어린이를 위한 차 체험관, 인문학, 사진, 다화, 시낭송 및 시 창작 등 다채로운 강좌도 개설된다. 개원은 4월말 예정.

"선운사 승가공동체 발전 매진"

제18대 주지 경우 스님 취임 고불법회 개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 제18대 주지 경우 스님이 부처님전에 취임을 알렸다.

고창 선운사는 4월 4일 선운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제18대 주지 경우 스님 취임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재곤 · 재덕 · 대우 · 법현 · 범여 스님 등 사중 원로스님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격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본말사 대중스님들, 이원택 전북정무부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유기상 고창군수, 석종건 35사단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화동들에게 꽃을 선물받고 있다.

이날 경우 스님은 조계종 종지와 문도종풍을 계승하고 대중이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외호할 것을 부처님전에 고했다.

경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역대스님들이 일구어왔던 승가공동체를 한층 성숙시키고 승가복지 확대와 재정투명화로 교구 숙원사업을 하나씩 성취해왔다"며 "교구 스님들이 원하는 많은 정책과 바람을 실천해 대중이 바라는 승가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불교, 고창불교회관 등 원만한 불사의 회향, 복지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증대를 통해 교구 위상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교구의 화합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합승가의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불법회에 앞서 선운사 부도전에서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영호당 정호대종사 71주지 다례재가 봉행됐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잘 알려진 영호 스님은 율과 화엄종주인 백파긍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과 교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서 당대에 명성을 떨친 대석학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건강 챙기는 전등사

제14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4월 2일 강화군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14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105개 팀 7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 열띤 경합 끝에 교동면 양갑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교동면 대룡 1리 팀, 공동3위에는 교동면 봉소 팀과 길상면 장흥 팀이 영예를 안았다. 윤호섭 기자

中 보타사와 우호교류

부산 삼광사, 우호사찰 비문제막식 성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3월 29일 우호사찰체결을 한 보타사에 방문, '우호사찰 비문제막식'을 거행하고 문화공연을 펼쳤다. 비문제막식에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총무 성해 스님, 재무 무성 스님, 보타사 주지 명생 스님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세운 스님은 "부처님께서 나투신 법을 함께 공부하고 즐기는 진정한 도반이자 불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글 배워 삶 활력 찾아요"

덕양행신복지관, 한글교실 입학식 개최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3월 25일 관내에서 고양시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2019년 성인문해교육사업-우리 한글 배움의 삶' 한글교실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글교실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2회 수업이 진행되며, 춘 · 추계 나들이와 특별교육 프로그램(금융 및 스마트) 등을 기획해 수강생들에게 삶의 활력을 전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부탄 문화재 복원, 日 전통기술 접목

전통불화 '탕카' 훼손 심각… 복원 프로젝트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히말라야의 불교국가 부탄. 몇 세기에 걸쳐 소중히 지켜온 불교미술을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불교문화재 수리 전문가들과 손을 잡았다. 불교를 인연으로 연결된 두 나라의 이야기를 지난 3월 26일 '야후 재팬 뉴스'가 특집으로 보도했다.

부탄의 수도 팀푸 교외에 설립된 '탕카 보존복원센터'에서는 부탄왕실의 지원 하에 스님과 재가자들이 탕카의 보존과 복원기술을 배우고 있다. 탕카란 족자형식의 티베트불교 전통불화로 석회를 바른 면포에 그리거나 자수로 수를 놓아 조성한다.

복원센터 소장인 켈상 최댄 타시 왕녀는 "본 센터의 목적은 탕카를 시작으로 조각과 건축 등 부탄불교의 성보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고 설립의의를 전했다. 이어 "부탄 전국에는 2,200개소 이상의 사찰이 있다. 각 사찰마다 평균 70점의 탕카를 소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복원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다.

현재 센터에서 보존과 복원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이와타 유리코 연구원은 "부탄에서는 오래된 탕카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조성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는 생각이 있다. 그 결과로 복원기술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오래된 탕카들의 보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 인근 '탕카 복원센터'
스님 7명 복원작업 몰두해
"서양기술 더 과학적이지만
불교사상 없어 日과 협조"

이 연구원은 또한 "수리는 단지 원래의 것을 고치는 것이지만, 복원은 최소한의 처치로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어디를 어떻게 복원했는지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현대의 복원 시스템에 따라 이뤄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복원센터는 일본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복원기술을 부탄에 전수, 최종적으로 부탄의 기술로만 문화재를 복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탕카보존센터에서 탕카를 복원하는 스님들.
사진출처=야후뉴스

소장인 켈상 왕녀는 여러 문화재 복원기술 중 일본의 전통기술을 택한 이유로 "일본의 복원기술은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이 균형 잡혀있다. 서양의 복원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일지는 모르나 거기엔 불교적인 사상이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불교를 전하는 나라로, 장인정신이 깃든 기술을 가진 것이 일본의 복원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탕카의 비단장식을 복원하는 우갠 도르제 스님은 "절에서 손재주가 좋다며 칭찬을 받아왔다. 손재주를 더 좋은 데 회향하고 싶어 자원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현재 센터에는 부탄 각지에서 온 스님 7명이 복원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도르제 스님은 "복원하는 탕카들이 너무나 오래돼 다룰 때마다 긴장하고 있다. 최근 복원한 탕카는 비단이 모두 삭아 새로 만들 정도였다. 보통 하나의 탕카를 복원하는데 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켈상 왕녀는 "부탄은 이웃나라인 인도나 중국에 비하면 작은 국가다. 그렇기에 전통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부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뒤 "최근 외부문명과 접촉이 늘면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급속도록 서구화되고 있다. 일본과 부탄은 같은 불교국가로 많은 가치관은 공유하기에 서로 교류를 통해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길 바란다"고 센터의 운영 의의를 전했다.

'Buddha' 철자 되찾은 印尼 불교도

인니 정부, 수십 년 걸려 'Budha' 오기 인정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잘못 표기된 '불교도(Budha)'가 바른 철자인 'Buddha'로 정정됐다. 3월 29일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이 정정으로 인도네시아 불교도들의 권리가 한층 더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불교는 인도네시아에서 공인된 6개 종교(불교 · 이슬람 · 가톨릭 · 개신교 · 힌두교 · 유교)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국민들의 신분증에 이 6개 종교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한다. 인도네시아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70만 명의 불교도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불교도들의 표기는 'Budha'로 오기돼 왔다. 인도네시아 불교도들은 이에 반발, 오랫동안 정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공식항의는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불교공동체 위원회의 명의로 인구조사국과 종교정책부에 접수한 것이다.

마침내 지난 2월 6일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인구조사국에 접수된 항의를 인정, 그동안의 오기였던 'Budha'를 'Buddha'로 정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인도네시아 불교공동체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잔디 무키안토(Jandi Mukianto)는 "복잡한 관료주의 때문인지, 인도네시아에 불교도가 적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를 정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잔디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표준어 사전에도 불교도 · 부처를 뜻하는 단어는 Buddha이며, 불교의 고전언어인 빨리어로도 Buddha"라고 이번 정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공동체들은 내무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한편, 불교도의 권리가 인정됐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북수마트라 불교도협의회의 부위원장 토니 아치(Tony Aci)는 "오랫동안 공문서에서 오기된 부처님의 이름을 찾았다"고 기뻐했다.

한편 수프리야디(Supriyadi) 종교정책부장은 "정부 관료들의 불교에 대한 제한된 이해로 생겨난 실수"라며 그간의 오기로 불거진 정치적인 의혹을 일축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박물관 수놓은 입체만다라 세계

도쿄국립박물관 특별전 '쿠카이와 불상만다라' 학술대회 · 특별공연도

일본에 처음 진언밀교를 전한 쿠카이(空海) 스님이 조성한 입체만다라가 박물관에 펼쳐진다. 3월 26일 일본의 '산케이뉴스'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된 특별전 '국보 토지(東寺)-쿠카이(空海)와 불상만다라'를 특별 보도했다.

교토의 남쪽에 위치한 사찰 토지(東寺)는 823년 일본조정이 쿠카이 스님에게 하사, 진언밀교의 근본도량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전란 속에서도 큰 훼손 없이 도량이 유지돼 왔다.

쿠카이 스님은 자신의 저술인 〈어청래목록(御請来目録)〉에서 "밀교는 심오해 문장으로 모두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도상을 빌려 깨닫지 못한 이를 열어 보인다"고 설명한 만큼 토지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하고 풍부한 불교미술 작품이 소장돼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에 펼쳐진 입체 불상만다라.
사진출처=요미우리신문

총 4장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제1장 '쿠카이와 후칠일 어수법(御七日御修法)', 제2장 '밀교미술의 지보', 제3장 '토지의 신앙과 역사', 제4장 '만다라의 세계'로 나뉜다.

제1장에서는 명필로 유명했던 쿠카이의 친필작품들과 유품들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쿠카이가 개창한 진언종에서도 비밀로 붙여져 행해지는 의식인 '후칠일 어수법'의 도량이 최초로 재현된다. 제2장과 3장에선 토지에 소장중인 다양한 불교미술품, 문서 등과 함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채색만다라가 공개된다.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는 제4장이다. 토지의 강당에 봉안된 입체 불상만다라 21구의 불상 가운데 15구가 한꺼번에 전시된다. 지금껏 여러 차례 열렸던 토지 특별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360도로 볼 수 있게 전시됐다. 토지의 입체만다라 불상은 쿠카이의 감독 하에 조성돼 일본 밀교조각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유물들 가운데 국보는 약 30건, 중요문화재는 60여 건이다. 이에 도쿄국립박물관 측은 '사상최대의 전시회'로 선전 으며, 전시회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특별전은 오는 6월 2일까지 개최되며, 전시회 기간 동안 관련 학술대회와 특별공연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홍콩 최대 갑부 불교미술박물관 건립

한화 4,500억원 들여… 5월부터 공식 개관 예정

홍콩의 신계(新界) 타이포(Tai Po) 지구에 위치한 사찰 츠샨스(慈山寺)에 불교미술박물관이 개관했다. 3월 29일 미술전문 인터넷 매체 '아트넷'은 홍콩에 최초로 개관할 불교미술박물관에 대해 보도했다.

츠샨스는 홍콩 최대 갑부이자 불교신자로 유명한 리카싱(李嘉誠) 청쿵그룹 회장이 세운 사찰이다. 5억 홍콩달러(한화 약 2,100억원)를 희사한 사찰로 2015년 대중에 공개했다. 츠샨스의 상징은 76m 높이의 관세음보살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음상이다. 츠샨스는 대중에 공개한 이래 도량의 경건한 분위기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참배객을 하루 4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의 참배객들이 츠샨스를 방문했다.

리카싱 회장은 사찰을 세운 것에 이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불교미술 작품들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박물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리 회장 측은 "박물관은 관음상 지하에 개설될 예정이며, 100구의 불상과 43개의 돈황사본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관할 박물관은 방문객들이 불교미술에 대한 감동의 여정을 느끼고, 청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2,229㎡(약 670평)의 규모로 4억 달러(한화 약 4,540억원)의 비용을 들여 세워질 예정이다.


박물관이 세워질 츠샨스 전경. 사진 속 관음상 지하에 박물관이 들어섰다.
사진출처=아트넷

소장품들은 문화재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리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1980년 설립된 리카싱 문화재단에서 구입한 것이다. 간다라 불상을 시작으로 중국, 티베트, 일본, 캄보디아 등 불교가 전파된 주요 지역의 다양한 양식의 불상들이 시대별로 모여 있다.

지난 3월 27일 2,000명의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 개관한 츠샨스 불교미술박물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지만 입장에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조우인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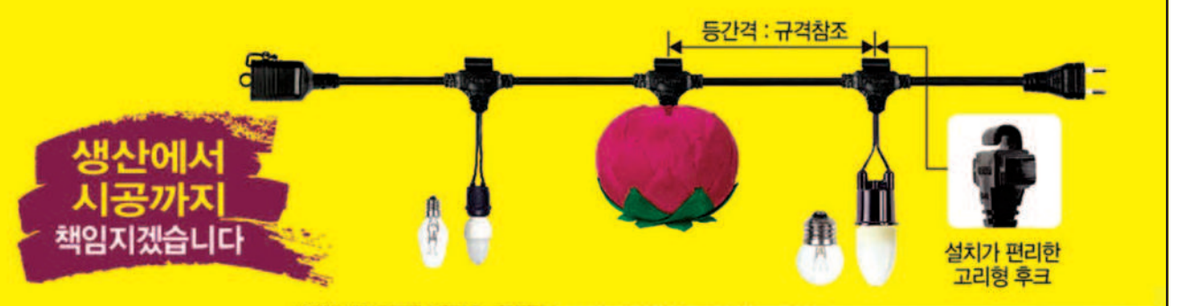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한 줄로 뽑아낸 과거의 기억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⑦ 삶의 헤드라인 뽑기



'글쓰기명상의 실제' 에서 두 번째 제안은 '삶의 헤드라인 뽑기' 다. 헤드라인? 그냥 '머리 제목' 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니면 광고에서 잘 쓰는 '메인 카피' 는 어떨까. 물론 그렇게 읽어도 문제없다. 복잡한 사연을 한 줄로 압축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헤드라인, 메인카피, 머리 제목, 어느 것이든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생각했을 때, 나는 〈난중일기〉를 떠올렸다. 남의 일기를 읽을 생각은 없었지만, 워낙 국가적으로 장려된 '타인의 일기' 여서 어릴 적부터 읽게 됐다. 그때 그 느낌이 지금의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헤드라인' 을 방불했다. 전란 중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이순신 장군은 딱 한 줄로 담아놓곤 했다. 1592년 6월,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의 일기다.

"맑음. 사량 뒷바다에 진지를 구축하고 밤을 지새우다." (난중일기, 6월 1일)

"맑음, 우수사 이억기와 일에 대해 논의하며 바다에서 잤다." (난중일기, 6월 8일)

신문 기사에서만 볼 수 있던 헤드라인이 요즘은 TV뉴스 화면에도 종종 올라온다. 시청자의 눈과 귀를 두루 바쁘게 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일까. 뉴스의 요점이 화면 하단에 굵은 글씨로 떠올라서 내용 파악하기 쉽다.

"오전 곳곳 대기질 탁해, 찬바람 불어 쌀쌀"

"감정 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

자막이 뜨고, 아나운서는 자막 관련 기사를 전한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눈치 챘을 것이다. 글쓰기명상 2번 항목 〈삶의 헤드라인 뽑기〉는 자신의 삶을 이런 자막이나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간결하게 압축 정리해보자는 제안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의 생멸을 경험하게 된다.

- 살아온 동안 잊히지 않는 사건을 신문의 헤드라인 형식으로 뽑아보기
- 작년 한 해, 정리 기사를 쓴다면 어떤 헤드라인을 쓸 것인지 적어보기
- 오늘 하루 전체를 헤드라인으로 적기
- 지난 한 달을 한 문장으로 압축 정리하기
- 지금까지 살아온 연도를 적고, 그 해의 일을 한 줄로 압축하기
-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처리하기
- 내면의 상처 혹은 두려움 등 여러 사연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

〈내 삶의 헤드라인 뽑기〉는 번잡한 사건이나 기억을 강력하게 압축하여 드러내는 일이다. 당신은 이를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일속을 꿰뚫어 보는 힘을 기른다. 이와 같은 작업에 흥미를 갖고 반복하면,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능력자가 된다. 여러 복잡한 사안 속에서도 당신은 그 핵심을 꿰뚫게 된다. 이 작업을 즐기다보면 어떤 일에 대해 긴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어떤 이미지나 인상을 갖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났다는 의미이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신문 읽을 겨를조차 없을 때, 두텁고 진한 헤드라인만 쓱쓱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짐작한다. 좋은 헤드라인은 몇 자 안되는 글 속에 기사의 핵심이 들어있다. 깨알 글씨를 읽지 않고도 내용이 이해된다. 아,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자신의 경험을 기사처럼 구구절절 써보자는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을 두고 그 내용의 압축 문장을 만드는 것이 '헤드라인 뽑기' 다.

나는 일기 쓰기 싫거나 나름대로 중요 사건을 소상히 적기 어려울 때, 이런 방법을 쓰곤 한다. 어릴 적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고 나면 발생하는 새까만 쟁반 같은 깻묵을 떠올려보라. 헤드라인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극심하게 쥐어짜서 만든 까만 깻묵 같은 한 줄이다. 그렇게 쥐어짰음에도 그 참기름 깻묵에서는 진한 내음이 풍겨난다. 수많은 참깨들의 생명력이 싱싱하게 살아 있는 참기름 깻묵 같은 글쓰기.

당신의 오늘 하루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나눈 이야기, 걸은 거리, 시선이 간 나무들, 지나가는 차량들, 거리의 소음…. 이것들을 한 줄로 압축하여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쓴다면 어떻게 쓸까.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번잡한 사건 매우 짧게 압축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
한 사건에 대한 이미지 이해돼
감정과 생각의 생멸 경험 가능

"배탈로 이어진 저녁 과식."

나는 지금 과식으로 인한 배앓이를 하고 있다. 주말 오후를 맞아 부부동반 친구들이 맛집으로 유명한 동태탕 집에 모였다. 싱싱한 동태와 애(동태의 내장) 맛에 흠씬 빠져들었다. 일행이 많으면 개중에는 반드시 소위 '손 큰' 분이 있다. 음식이란 자고로 실컷 먹고도 남아야 한다는 지론으로 마구 주문하는 분. 결국 나도 소화력의 임계점을 넘긴 것이다. 그런 사연을 헤드라인처럼 뽑아본 것이다. 이 한 줄을 뽑아내는 동안 오늘 만난 사람들, 주문한 술 종류, 술병 위치, 주문 순서 따위가 머릿속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 당신의 1년을 한 마디로 적어보라. 지나간 사계절을 압축하여 헤드라인을 뽑아보는 건 어떤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딱 한 줄로 드러낸다면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나의 정서연대표 작성

내 삶이 만약 한 곡의 음악이라면 감정이나 정서는 뭘까. 감정이나 정서는 아마 악보의 음계에 해당할 것이다. 삶은 그 음계에 따라 연주되는 소리의 높낮이, 모양의 높낮이, 냄새의 높낮이, 맛의 높낮이, 촉감의 높낮이를 통칭하는 표현 아닐까. 당신의 삶을 강물로 비유하면, 바위에 부딪혀 깨지는 격류일 때도 있고, 홍수일 때도 있고, 낮고 순해져서 햇빛 맑은 섬진강 하오처럼 거대한 물비늘을 난반사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내 삶이 그 강이라면 감정이나 정서는 그런 물비늘이 아닐까. 어떤 심술궂은 신이 있어, 튀어 오르는 강물 빛을 모두 거둬간다면 그래도 강의 자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의 삶에서 감정이나 정서를 모두 걸러낸다면 자신의 흔적은 어디에서 찾을까. 당신이 당신을 알아보기나 할까.

삶과 정서는 강과 물비늘의 관계다. 한 사람의 감정은 물고기의 비늘이고, 장수의 갑옷이며, 젖먹이의 옹알이, 강아지의 눈빛, 해거름의 산그늘이다. 슬픔, 기쁨, 두려움, 외로움, 좌절, 즐거움, 암울함, 막막함, 우울감…. 삶은 이런 정서들과 순간순간 뒤섞여 한 곡의 인생가를 만든다.

〈나의 정서연대표〉는 내 영혼의 노트 어딘가에 끊임없이 새겨지는 생의 악장을 노출해보자는 제안이다. 당신과의 접촉 조건에 따라 놀람, 기쁨, 좌절, 평안 등의 리듬을 타면서 생의 곡절을 이어주는 감정은 심지어 꿈의 켯속까지도 파고 든다. 당신은 자나 깨나 정서 덩어리다. 당신의 삶에서 정서를 빼는 것은 노을빛 섬진강에서 물비늘을 빼는 일이다. 당신이 살아온 날의 악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때 상황이 어렴풋이 또는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것을 떠받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기억하는 모든 사건과 한동안 동행했던 정서들. 그것들을 낙서처럼, 혼잣말처럼, 고백처럼 드러냄으로써 내 삶의 느낌이 어떤 생애를 만들어 가는지 거리 두고 바라보는 일. 나의 정서연대표 작성이다.

- 자신이 살아온 연대기에 따라 당시의 대표 정서를 하나씩 적어본다. 1년 단위나 반년 단위 또는 시기별 단위로 쪼개면서 적어가기
- 오늘에서 어제로, 어제에서 그제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떠오르는 기억에 따라 정서 이름표 붙이기
- 자신이 아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기
- 자신이 애착하는 물건에 대한 나의 정서 이름표 붙이기
- 오랜 세월 이어지는 사연을 두고 (사건 자체는 내버려 두고) 감정의 흐름만 적어보기
-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스쳐간 감정들 채집하기

감정은 변덕스럽다. 방금 전에 검정색 감정이 금세 푸른색이 된다. 심리학에 15초의 법칙이 있다. 하나의 감정이 치솟아 정점을 찍는 데 15초가 걸린다는 것이다. 15초 중, 3초만에 감정의 갈래는 결정된다. 긍정심리학자 데이비드 플레이(David Fleay)는 〈3초간〉이라는 저서에서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감정의 갈래가 정해진다고 한다. 화가 나면 화의 갈래로, 기쁨이 일면 기쁨의 갈래로 접어드는 데 3초. 그 감정의 정점은 15초. 그리고 다른 감정으로 변한다. 아, 이런. 고작해야 15초짜리 정서 수명이라니.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떤 사건과 함께 감정이 솟구치거나 가라앉은 순간 화인(火印) 같은 흔적이 '나 어딘가' 에 새겨진다.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의 기억 속에는 육탈된 시신처럼 이야기는 털려나가고 감정이라는 유골만 남는다.

이런 대화가 있다. "그 사람은 아냐!" "왜?" "무조건 싫어!" "5년 전에 딱 한 번 본 사람 아냐?" "그래,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지만 싫은 건 맞아." 이쯤 되면, 우리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모호해진다. 사건이 진실인지, 남은 감정이 진실인지, 분명한 것은 당시의 사건이나 기억에 비해서 느낌 수명은 지겹도록 길다는 것이다.

〈정서연대표 작성〉은 숨은 감정의 발굴 작업이다. 세월의 골짜기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흔을 발굴하는 일이다. 기억 하나를 따라 어렴풋이 더듬고 있을 때, 낯선 감정이 불쑥 일어난다면 당신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불귀(不歸)의 정서' 를 만난 것이다. 그것을 햇빛 아래 정갈한 문자로 드러낸다면, 당신의 감정은 비로소 갈 곳으로 간다. 어디일까? 본래 왔던 곳, 그쯤이 아닐까. 안갯속 같은 기억이어도 좋다. 마음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떠오르는 사연들을 보면서, 지금의 감정을 적어본다.

1982년 (8살) : 두려움, 외로움, 놀람/1983년 (9살) : 놀람, 서러움, 환희, 아쉬움, 수치심, 아득함

연대별 감정을 적거나 어떤 인물에 대한 감정을 떠올리거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주로 어떤 감정을 호명하는지 살펴보라. 자주 불려 나오는 감정어에 주목해보기. 그것이 혹시 당신의 감정 습관은 아닌지, 단정 짓기 망설여지면 친구들 단톡방에 얘깃감으로 넌지시 넘겨보시라. 요즘 내가 좀 외로워 보이냐?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새 는 지 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 841주년 기념
제 13회 추모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예향의 고장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염송의 저자이시며 고려후기 2세 국사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1주년을 맞이하여 제 13회 추모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에 귀하신 시간 함께 하신 인연공덕으로 가내와 명품 화순의 화합과 무궁한 번영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 11시
■ 장 소 : 화순문화원 들국화 공연장
■ 주 최 : (사) 진각국사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HWASUN COUNTY 화순군의회 HWASUNCOUNCIL
■ 협 찬 : 화순문화원, 화순초교 37회 동문, 보리밥전문 벽오동 화순점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H·P 010-2971-4646



대행 스님

정신계 물질계를 훌떡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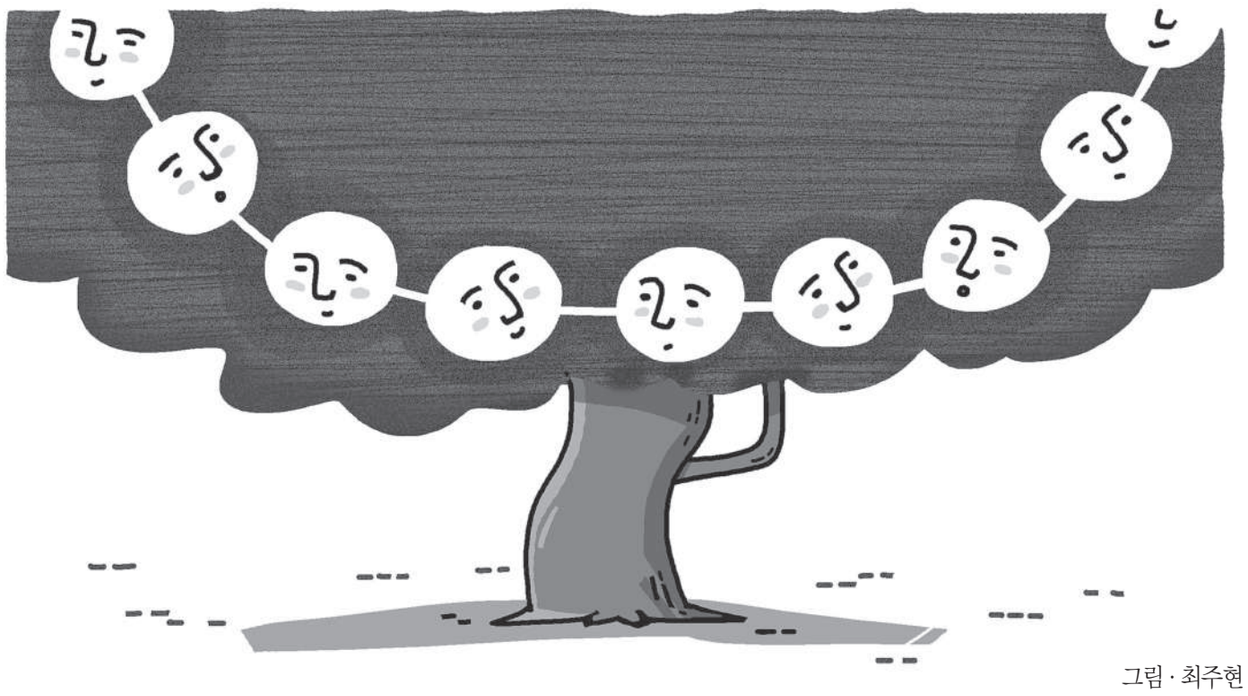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에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봄날이 온다면, 각계각층 무엇을 막론해 놓고 다 녹일 수가 있고 얼릴 수도 있어서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도록 서로 도반으로서 잘해 나가 봅시다. 오늘은 더군다나 또 서로 토론하고 서로 서로의 모자라는 거를 메꾸면서 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질문과 답으로써 서로 나누겠습니다.

질문자1(남) 항상 스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하면서 정진을 할 때 입으로는 "주인공!"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다 하여 내 가슴속을 생각해야 하는지, 과연 어디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을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인간이 태어났으면 본래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이 염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하하…. 어떻습니까? 염주가 되려면 줄에다 알을 꿰어야 염주가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염주와 같이 그렇게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 게 없이, 육신과 정신계가 본래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이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 누가 믿어라, 안 믿어라 할 게 없이 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럼으로써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같이 겸해서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줄이다, 알이다 이런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유를 할 때에 싹은 뿌리에 붙어 있고 뿌리는 바로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아, 그 뿌리로 인해서 사는데, 다른 데 어디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도 떠나서, 부처님을 숭상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그대로 자기를 믿어야죠. 바로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뿌리가.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까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거니까 내가 "이걸 믿으시오!"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이 염주와 같이. 그러니 이 염주는 이 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그렇게 이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줄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물질계 테두리 안에서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신계로 무(無)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믿으란다고 믿지도 말고, 믿지 말란다고 안 믿지도 말고, 또 누가 이러고저러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돌아가는 인간 생활 자체와 진리가 바로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믿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듯이,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염주알이 저절로 이 줄에다 꿰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꿰어졌기 때문에 염주알은 걱정도 안 해요. 줄 끊어질까 봐 걱정도 안 하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뿌리와 싹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놨다가도 못 믿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시일이 안 가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천차만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도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렇게 못 믿을 것이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게 불찰이 아닙니까? 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이제 꼭 믿고 맡겨 놔야 할 데가 아주 가까운, 바로 내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마주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하여튼 아주 타당합니다.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아,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네? 부부한테도 할 말, 못 할 말 가려서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거는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 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 때 마음의 선장은 잘못 내걸랑은 다스려서 거기 놓고, 잘 내걸랑은 '잘 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내 주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거기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주고 안 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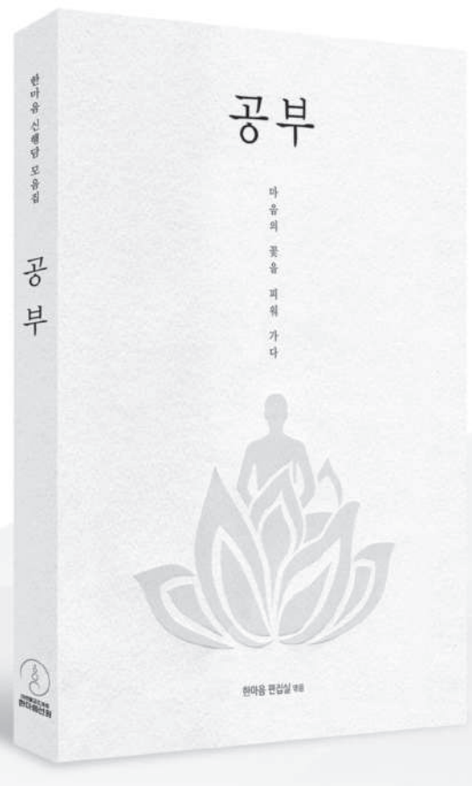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부처님 될 수 있는 능력이 99%가 됩니다. 이건 한 찰나 생각만 잘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무식하고 무식 안 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반드시 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고 거기 놓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아시고,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아시고 그 자리에다 되놓으신다면, 앞서의 게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보람 있는 새 삶이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병이 들었거나 죽을병이 안 들었거나,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옷을 벗고 바로 승천이 될 거고, 얼른 쉽게 말해서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거고, 또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건지는 거, 저래도 건지는 건데 왜 겁을 내느냐 이겁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누구나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지인데.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과정과 열반하신 과정이 어땠습니까? 염주알을 시발점에서 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점까지. 종점까지 오니까 다시 시발점이 되더라. 그렇죠? 다시 시발점이 되죠? 그러니까 종점이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점이 됐다 하면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면 그냥 한 찰나에 그대로,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못 하고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쓰라

☞ A17면에서 계속

바깥으로만 끄달린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차안(此岸)에서, 즉 차단된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생생에. 그 의식, 관습, 인과에 그냥 매달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개구리가 된다면 개구리로 살던 습이 그냥 누적이 돼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이 줄은 용광로와 같고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기만 하면 모든 거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놓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싹의 자기 뿌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무조건 믿어야죠. 뭘 누가 믿어라, 말아라 할 때까지 있어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금강경에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란 사구게가 있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소소영영한 마음자리인가 합니다. 한생각 하기 이전의 마음이 한마음 주인공이 나투는 자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스님 지금까지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마음 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 선장으로 섬기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락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놓되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 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더디니까 아예, "그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생각 내기 이전이 자기 뿌리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아주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저는 마음공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한 가지씩만 하세요.

질문자2(남) 불법의 유식론(唯識論)에 보면 인간의 인식은 대개 열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다섯 가지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범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는 의식(意識)입니다. 그러나 여섯 가지는 보통 범인들이 느끼는데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되는 거는 우리 범인들이 일반적인 공부를 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보면 이러한 칠식(七識), 팔식(八識), 구식(九識), 십식(十識)에 도전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어 왔고, 또 일생을 바치는 고승 대덕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두어 사람에 대해서 조사어록(祖師語錄)에 나오는 것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마어록(達摩語錄)에 보면 달마 조사와 무제의 대화에서 "심심상련(心心相連), 교외별전(敎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제 몇 식(識)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항상 여러분한테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죠. 그건 열 가지든 백 가지든, 만 가지든 천 가지든 그건 하나로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로만! 내 진실한 근본에서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체 만물이, 새는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말과 행이 그대로 이렇게, 뜻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통하죠. 전체가 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사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실현돼 있어요, 아주.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육감으로도 이렇게 통신이 오죠. 사람을 벌써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 아, 저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가 좀 어떻구나, 어떻구나.' 하는 거를 대략 짐작하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심전심이죠. 이 마음과, 즉 말하자면 영과 영이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없으면서, 맑은 물이면서도 그것은 둘이 아니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고 있다. 꽃을 볼 때에도 이심전심이 되죠. "야, 너는 왜 낮이면 피고 밤이면 오그라드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이 있을 겁니다. 또 "왜 밤에는 피고 낮에는 오그라드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회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비밀의 행이면서도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부처님처럼 금방 이 자리에서 요 문 바깥을 나갔다 들어왔다, 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또 물속의 생물들을 다 만나고 왔다, 한 찰나에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이심전심의 그 묘한 도리를 체득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서 알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천백억 화신이 나투면서 각계각층의 중생들에게 다응(應)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심전심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질문자2(남)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칠식은 말나식(末那識), 팔식은 아뢰야식(阿賴耶識), 구식은 아마라식(阿摩羅識), 십식은 백정식(白淨識)인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백정식 정도 되면 생사 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큰스님 백정식은요, 그 의식까지도 없어야 백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아뢰야식이니 뭐, 이것이 아주 몰락 다 없어야 백정식이죠. 그래서 백정식이라는 건 "아주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한 무(無)가 돼야, 이것이 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모르는 대로 그대로, (염주를 들어 보이시며) 이 알은 반드시 줄에다가 다 놔라 이겁니다, 의식까지도. 지금 직행으로 들어가는 코스지, 거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인 원효 대사의 어록에 보면 "심생즉종종기 심멸즉종종멸, 일체유심 심외무법 만법유심(心生卽種種起 心滅卽種種滅 一切唯心 心外無法 萬法唯心), 우주 일체는 오직 마음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식에 해당되는 건지요?

큰스님 식이고 나발이고요, 허허허…, 심생즉종종기는, 이거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신계와 물질계, 이런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염주알과 염주줄이 둘이 아니고 그냥 일심으로써 통하느니라." 이러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둘이 아닌 도리가 바로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내느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내기 이전은 항시 좋고 나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엉망진창으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주어진 대로 그 마음을 내지를 말라는 거죠. 지금 중생 의식들이 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스려서 이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자기 선장에게 한마음으로 따라 줄 때까지 수행을 시켜라 이겁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공부를 하는데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큰스님 아, 원리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망하게도 할 수가 있고 좋게 되게끔 실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다스려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될 수 있는 거죠.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처처불법(處處佛法) 사사불공(事事佛供)'을 신행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뭐, 달리 생각할 것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죠? 그러니까 처처불(處處佛)이에요, 처처불! 즉 말하자면 사무 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그 생명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처불이죠. 그래서 처처불이며 사사불공이라고 했죠? 그 불공이라고 한 자체가 바로 처처불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그냥,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공(空)했다는 겁니다. 찰나찰나 공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저기 보고, 금방 돌아서면 저기 생각하고, 금방 돌아서면 딴 거 보고 이러죠? 내가 항상 말을 하죠? 가정에 들어가도 "여보!" 하면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됐다가,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이 됐다가,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됐다가, "형님!" 하면 형님이 됐다가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바뀌지 않습니까? 생활도, 일체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육체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도 작용하는 것이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땐 이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저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딱딱한 게 들어오고, 어떤 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작용하는 것도 사사건건이 달라요, 이건. 들어오는 대로 사사건건이 다르니까 어떤 건 이렇게 내보내고, 어떤 건 저리로 내보내고, 어떤 건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메꿔서 내보내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메꿀 수가 없게 되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덕누덕 붙여 가지고 긁어서 외려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거는 일체가 다, 풀 한 포기도 불(佛)이다. 처처불이다! 또 일체가 다,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는 게 교(敎)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 자체가 그대로 불교요, 삼천대천세계가 공했다!" 했습니다. "불공" 했는데 이걸 "평등불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 공했으니 그 의의만 떼어 놓고서 자기가 깨달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배워야죠. 너무 어렵게 배우면 어깨가 무거워서 더 안 돼요. 왜, 집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 너무 닥치는 게 많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는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그냥 "어휴! 멋대로 돼라." 이러고 내팽개쳐지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불성이 가려집니다. 발견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척척 붙어서 눈을 가려 놔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떼야 될 텐데 외려 붙이면 됩니까?

(다음 호에 계속)

>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
>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위 법문은 1994년 4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소셜미디어와 뉴스 편식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바야흐로 소셜미디어 시대
뉴스 이용 패턴 급격 변화
기존 신문 · 방송들 고전 중

소셜미디어 통한 뉴스 이용
선택 전제해 편식 가능성 커
AI 기초한 추천으로 심화돼
정보 편식, 현실 왜곡 가져와

믿고 싶은 것 믿는 '확증편향'
일종의 집단편향 확대될 수도
편향 굴레 있을지 자아성찰을

스마트폰 속의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를 다 이용하기에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어쩔 수 없이 골라서 볼 수밖에 없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서 이를 선택적 노출이라고 한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뉴스이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적 노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적 노출은 정보 이용의 불균형과 편향을 야기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의 디지털 생산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대중미디어의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아침엔 신문, 저녁엔 TV라는 과거의 뉴스 이용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수시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뉴스 이용에도 고정됨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주류 미디어로서 위풍당당하던 종이신문은 점점 독자를 잃어가고 있다. 1996년 70%에 이르렀던 신문구독률은 2017년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서 9.9%를 기록하여, 20년 만에 1/7로 급감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자매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통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벌써 지난 2013년에 종이판의 발행을 중단하고 모든 판을 디지털로만 발행하고 있다.

방송은 어떤가? 기성세대라면 어린 시절 저녁 9시 뉴스를 가족과 함께 시청하던 기억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9시 뉴스 본방사수도 저녁뉴스 TV시청도 생소한 개념에 다름 아니다.

소위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어느 방송사의 프라임타임 뉴스 시청률은 1%를 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보이용에 있어서 TV라는 대중미디어가 더 이상 주류미디어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성장의 위세는 당당하다. 최근 전 세계 37개국의 디지털 뉴스이용 실태를 조사한 〈2018 디지털 뉴스이용 리포트〉에 따르면 페이스북 · 유튜브 · 트위터 · 인스타그램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은 검색에 의한 뉴스 이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중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차별화된다.

저녁에 방송되는 9시 뉴스나 아침에 배달되는 종이신문 한 부는 마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다양한 분야의 소식이 묶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은 선택을 전제로 하기에 뉴스 이용의 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AI 알고리즘에 기초한 연관 뉴스 자동추천 기능으로 인하여 편식이 심화할 수 있다.

뉴스의 편향성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중립성과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언론사, 즉 정보 제공자를 비판한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홍수의 패러다임 속에서 정보 제공자의 편향성보다 더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정보를 잘못 이용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의 편향성이다. 마치 어린 아이들의 편식이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하듯이 편향적 정보 이용이 왜곡된 현실 인식을 축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개인의 편향성이 위험한 것은 개개인의 편향성이 집합되어 일종의 집단 편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정보 이용의 확증편향 굴레를 쓰고 있진 않은지 나부터 돌아볼 일이다.

社 說

생활밀착형 사찰로 거듭나길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병원이 아닌 사찰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된다고 한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IT 기반 사회공헌 플랫폼 설계 전문기업 도둠코리아, U헬스케어 구축기업 ㈜헬스맥스는 4월 2일 MOU를 통해 'U템플헬스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U템플헬스케어서비스는 도반HC와 각 분야 전문기업들이 함께 전개하는 '1사(社)1템플 힐링 건강체험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도반HC는 조계사와 봉은사를 시작으로 3년간 종단 산하 주요사찰 200곳에 U헬스케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사찰을 찾는 대중은 심혈관 질환과 만성대사질환 등을 개인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데이터의 누적관리와 추이 변동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사찰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자동심장충격기기도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고 한다.

이 같은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불교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다. 노령 신도들의 일상적인 건강 체크는 물론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예방적 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청 · 중년들에게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사찰은 생활밀착형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중의 니즈를 알고 함께 호흡하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는 불교를 기대한다.

불교모독 사건, 엄정 대처 필요

가사의 수위 문제로 이따금씩 논란이 발생하는 힙합음악계에서 급기야 불교의 예경 대상이자 교조인 부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는 음원사이트에서 문제의 음원 배포가 중단됐지만 3월 30일 공개돼 대중의 지탄을 받은 힙합가수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가 그 주인공이다.

이 곡에 대해 사회에서는 여성혐오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가사로 썼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이 잇따랐고, 불교계서는 부처님을 욕보이는 표현에 불자들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여론을 인식한 해당 가수와 작곡가가 각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실한 반성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가수와 작곡가는 공개석상도 아닌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어휘 선택이 지나치게 과격했던 점을 반성한다. 가사에 불쾌하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만 밝혔을 뿐 어휘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다. 이 같은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처님과 갱뱅"이라는 저급한 표현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자들이 알 도리가 없다. 게다가 작곡가는 소속사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교의 교조를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교계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계종 종평위에서만 가수와 소속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을 뿐 어떤 단체도 성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불교계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불교모독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플라스틱 제로 운동 실천을

최근 길이 8m의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이 나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각종 쓰레기봉투와 플라스틱 접시, 어망, 그리고 브랜드와 바코드가 보이는 포장지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고래의 뱃속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고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어미 위장의 3분의 2를 가득 채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영양분 흡수를 방해해 유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국립공원의 해변으로 약 10m 길이의 향유고래 사체가 떠밀려왔다. 그 고래의 뱃속에도 페트병, 슬리퍼를 비롯 플라스틱 컵이 자그마치 110개나 들어 있었다. 고래가 왜 플라스틱을 먹었을까? 그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1997년 북태평양에 있는 미국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약 155만㎢ 넓이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오른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 쓰레기 개수는 약 1조 8000억 개, 무게는 8만t이다. 이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무게이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래들의 죽음 앞에서 '지구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물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바다 생물들이 먹고 죽어가는 플라스틱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그것들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중해에서 어류 표본을 채취해 플라스틱 부스러기의 유무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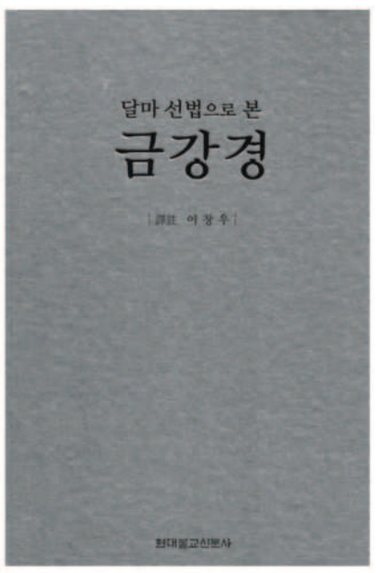
그 결과 18%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황새치, 참다랑어와 같은 인기 어종도 있었고 북해에서 양식된 홍합과 대서양에서 기른 굴, 심지어 소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주변의 유해 화학 물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독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몸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쯤 되면 플라스틱이 지구와 인간 세상을 지배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방송사가 진행한 자취생의 '플라스틱 없이 살기' 실험이 단 몇 분 만에 포기되었을 만큼 플라스틱 없이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3위라는 놀라운 통계를 가진 우리나라이고 보니 더욱 그렇다.

4월부터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제 비닐봉투 사용 금지라는 규제만큼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라스틱 없이 살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지구가 아름다운 푸른 별이 아니라 온갖 플라스틱과 합성소재로 뒤덮인 '플라스틱 행성'일 뿐이라며 세계 각지의 집에서 플라스틱 물건을 집 밖으로 모조리 꺼내 전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고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처럼 지구의 표면으로 쏟아져 나와 동산을 이루는 플라스틱들. 언젠가 지구도 고래처럼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지구의 품안에서 살고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래의 뱃속에서 발견된 새끼 고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13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천태지관 수행, 현대명상과 만나다

'마음심터를 가다'

③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명상을 통해 얻은 지혜로 도시의 삶이 주는 어떠한 강렬한 경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기분은 집에 막상 도착해 짐을 풀고 사람들을 만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바닥을 친 자기 자신을 보며 느낀 것은 어떤 지혜를 얻었을 때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것을 지켜가는 것임이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명상수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됐고, 눈에 띈 것은 분당에 위치한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이었다. 4월 2일 오후 7시 직장인을 위한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분당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에 위치한 명상상담대학은 명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도심 위치한 산중 사찰

천태종 직할사찰인 분당 대광사는 경기도 성남과 광주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 나지막한 불곡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대광사는 천태종 본산인 구인사가 단양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대중포교를 위해 천태종 종단 차원에서 건립한 사찰이다.

대광사는 특히 교통이 편리했다. 퇴근 후 분당 도심에서 약 10분 가량 운전을 하니 대광사 표지판이 나왔다. 이외에도 분당 각 역마다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대 분당병원 옆에 위치해 찾기가 쉬웠다.

2001년 건립된 대광사는 산자락에 위치한 산사이면서도 도심과 가까운 특성을 반영해 곳곳에 현대인들에 맞는 시설을 도입했다. 먼저 전통사찰로서 동양 최대 규모의 목조건물인 미륵보전과 국내 최고 높이인 총 17m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불 좌상 등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북카페와 쉼터, 트레킹 코스 등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전통명상수련센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길손을 반기는 곳은 북카페였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명상교육을 받기 전 간단한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북카페 앞쪽이 주차장으로 대웅전 앞마당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찾은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는 천태종 차원에서 명상과 관련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2011년 11월 기공 후 약 3년 2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건립됐다. 명상수련센터는 연면적 9,689㎡에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명상수련실, 다도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명상 골자로 한 '내면 불사' 한창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외형적 불사와 함께 내면의 불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태종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으로 유명하다. 특히 불교학과와 법사과로 구성된 금강불교대학을 1983년부터 운영하면서 한국 불교교양대학을 선도해왔다. 전국 16곳의 금강불교대학 중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에는 명상에 특화된 명상상담대학을 두고 현대화된 불교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대중포교에 맞춘 현대화된 사찰 속에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명상과 상담심리 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처음부터 대광사가 명상상담대학을 개설해 운영해 온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금강불교대학을 2015년 폐지 한 후 명상상담대학을 개설했다. 좀 더 폭이 넓은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학장 진성 스님은 "관문사 금강불교대학을 비롯해 수십년 동안 구성된 커리큘럼과 체계를 자랑하는 금강불교대학 중 새롭게 생긴 이 곳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스님은 "명상상담대학은 총 3년의 과정으로 기존 불교대학과 명상관련 교육과정 중 가장 긴 교육을 자랑한다. 불교명상을 비롯해 일반 명상기법, 상담심리 등 관련된 모든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대학과정을 수료 후엔 명상상담지도사 2급 자격증이, 대학원과정을 수료하면 명상상담지도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은 불교, 명상, 상담 3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B2면에 계속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4월 2일 전통명상수련센터에서 진행된 기본과정에 참여한 불자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 일본 특유 신앙문화들
B4 책세상 — 달라이 라마의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B5 문화 — 불일미술관 특별기획전
B6 학술 — 한국민속학회 '땅설법' 세미나

이론교육 · 지관 수행, 자비 실천으로 승화

〈止〉 〈觀〉



명상이론 수업을 경청하는 불자의 모습.



강의실 옆에 마련된 수행공간에서 이론수업을 들은 불자들이 명상 실습을 하고 있다. 올바른 자세부터 호흡법 등 기초 안내가 친절하게 소개됐다.



대광사 옆 불곡산 자락에 마련된 명상길.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B1면에서 계속

불교는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야사상, 유식과 명상, 천태지관 등을 배우게 된다. 명상과목은 위빠사나(알아차림/자기집중/호흡)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고 무념 치유 특강도 진행된다. 상담과목은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가족행복상담, 대상별 상담이론 및 실제 등을 다룬다. 기본(야간),심화(주간/야간), 전문(야간)과정이 있다.

대중포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수강료 또한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명상수행처마다 다르지만 일반 명상교육이 한회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을 넘는데 비하면 학기당 수강료가 17만원에 불과하다.

"명상과 심리상담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천태종 신도 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듣고 입학하는 일반인들도 상당수 됩니다. 3년 간의 체계화된 교육이 비해 저렴한 수강료도 장점이지요. 그렇다고 교수진들의 수준이나 커리큘럼이 다른 곳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범람하는 명상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입됐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을 명상심리를 전하셨는데 3개월 또는 1년안에 다 배운다는 것은 무리지요."

천태종의 특별한 전통명상 수행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명상교육이란 무엇일까. 명상하면 대표적으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마한다. 지(止, 사마타), 관(觀, 위빠사나) 수행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대승불교가 바로 천태종이다.

지란 우리 몸과 마음의 잡된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평정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관은 몸과 마음이 멈췄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본래적 불성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천태종에서는 지관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망상에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일념삼천의 이치에 따라 불성과 온갖 잡생각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망념에 물들지 않는 이가 되어 망념에서 자유롭고자 애쓰는 사람들과 일체가 돼 그들의 구제를 돕는 보살이 되는 것이다.

"천태종의 지관 수행은 호흡을 닦는데서 시작하여 다시 공가중 삼지삼관에 이릅니다. 지를 닦는 것은 정을 닦는 것이요, 관을 닦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교관겸수이고 정혜쌍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비발현을 통해 대중이 함께 깨달음의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태종에서는 공관으로 진리를 설명한다. 공은 있다(有) 없다(無)라는 상대적이고 분별적인 사고를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의 생각을 여의고 참모습을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공이다.

이를 공과 가와 중의 세범주로 설명했는데, 천태종에서는 현실 속에서 진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공에서 가로의 접근을 중시한다. '가'로 대변되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공'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되고, 진리의 이상에 있어도 현실을 잊지 말고 실천해 가자는 사상이다.

이론과 실습 병행, 교관겸수

천태종은 체계적인 교육을 중시하기에 명상상담대학의 경우도 약 70%의 이론과 30%의 실습이 병행되고 있었다. 4월 2일 진행된 기본과정에서는 50분 가량의 학장 진성 스님의 천태지관에 대한 강의와 30분 가량의 지관 수행 실습, 1시간 가량의 외부인사의 명상이론 수업이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관법을 통한 알아차림이 결국 지혜의 발현으로 가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타행을 통해 발현되어야 진정한 지혜"라며 "주는 행복이 곧 받는 행복이며,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다. 결국 수행에서 내 마음을 알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하기에 명상과 심리상담 등을 함께 익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학장 진성 스님

교관겸수로 전통 수행
명상 제반이론 폭넓게 교육
3년 과정, 민간자격증 제공
실습 병행하는 것이 특징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 전경.

이런 방침 속에 반응은 뜨거워 이날 수업만 해도 약 90명의 대중들이 참여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학업을 마치고, 혹은 생업을 마치고 앉아 명상 이론 수업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분당에 거주하는 남효정 씨(45)는 "공,가,중의 학년별 과정으로 수행과정이 되어 있어 좋다"며 "천태종에서 중요시하는 관음염불정진 외에도 체계적인 지관수행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대중과 함께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유효근 씨(23)도 "부모님의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경계에서의 질문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명상에 관한 여러 이론을 함께 접하고 불교 전통의 수행법도 알고 할 수 있는 점이 유익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지관 수행 실습은 기본과정의 첫 단계로 자리에 앉는 법부터 호흡법 등 기초적인 과정이 소개됐다. 스님의 지도하에 90여 명의 대중들은 조용히 앉아 삼매에 들었다.

"농부가 봄이 온지 모르면 굶어 죽습니다. 파종을 해야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끝과 발끝 알아차림 영역을 확대하고 마음의 봄이 옴을 느껴보세요. 알아차림의 범주를 생활 곳곳으로 넓히면 또 다른 경계가 생겨납니다. 결국 지혜와 자비라는 불교의 두 축을 고루 닦고 실천하여 삼라만상은 모두가 일심동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 입니다."

대광사를 뒤돌아 나가는 길, 맞은편 광교산에 늬엇늬엇 해가 저물고 있었다. 광교산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불곡산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펼쳐지는듯한 느낌을 받으며 길을 나섰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커리큘럼

학 제 3학년 6학기 과정

강의 내용

불교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야사상, 유식과 명상, 천태소지관

명상 위빠사나 이론 실기 병행, 무념치유 특강

상담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가족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과 실체

강의 시간

기본과정 | 매주 화요일 오후 7~10시까지
심화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10시까지
전문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7~10시까지
특별과정 | 매주 화요일 테라피 요가명상

*수료 후 명상상담지도사 1,2급 자격증 부여

(031)715-3000

찾아가는 길

지하철 정자역 · 미금역 · 오리역에서
마을버스 1 · 2 · 19번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업장 소멸’ 발원하며 동굴 걷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⑱ 일본 특유 신앙문화들



34번 키요타키지의 계단 순례의 입구. 계단 순례는 일본불교 특유의 신앙 풍습으로 법당 지하나 천연 동굴을 돌고 나오는 것으로 업장 소멸을 위해 이뤄진다.

‘맑은 폭포’란 키요타키지엔
계단순례 · 역수탑 체험 가능

법당 지하 걸으며 업장 소멸
발원하는 日 특유 ‘계단순례’
역수탑, 韓 ‘생전예수’ 유사해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싸고 츠야도를 청소한다. 벽에 붙은 주의문에 눈이 간다. ‘화기엄금’, ‘츠야도는 깨끗이 써주세요’ 등의 글들 사이로 조그맣게 ‘바퀴벌레 주의’라고 적혀있다. 어쩐지 새벽에 으슬으슬해서 일어났을 때 커다란 바퀴 한 마리가 내 신발 위에 있더라니….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을 갈 겸 나와서 사찰을 슬슬 둘러본다. 셋케이지는 코보 대사가 세운 절로 처음 이름은 코후쿠지(高福寺)였다고 한다. 전국시대에 임제종의 고승인 켓포 화상(月峰和尙)이 중창하면서 선종 사찰이 되었다. 셋케이지는 시코쿠 88개소 중에 단 3곳뿐인 선종 사찰 중 한 곳이다.

화장실에서 용무를 해결하고 나오니 할머니들이 버스에서 내려 가지런히 본당 앞에 선다. 오늘의 첫 단체 순례자들인 듯하다. 할머니들은 다른 순례자들처럼 독경을 하시는 대신 느리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셨다. 바로 ‘고에이카(御詠歌)’다. 옛날엔 문맹률이 높아 독경을 할 줄 몰랐던 순례자들이 각 사찰의 본존을 찬탄하거나 사찰의 고사를 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독경을 대신하였다. 하지만 점점 문맹이 줄어들고 노래 대신 독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오히려 고에이카보존회나 전승회가 생기고, 전문적으로 배운 이들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들은 악보를 보시면서 노래를 하셨다. 가사라곤 단 한 문장뿐인데 천천히 부르니 3~4분가량이어졌다.

“여행 중에 굶주릴지라도 지금은 코후쿠지에서, 앞으로 기다리는 새벽의 달이여.”

고난을 무릅쓰고 지금 코후쿠지에 이르렀다. 후에 이 사찰은 켓포(月峰)화상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다. 고에이카의 내용이나 문장이 모두 중세 일본어로 되어 있어 쉽게 뜻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의미를 되새길만한 노래들이 많다.

짐을 챙겨 나와 납경을 받았다. 납경소 직원이 어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납경을 해준다. 7시가 조금 넘어 다음 사찰인 33번 타네마지(種間寺)로 향했다. 하늘이 흐리고 가랑비도 내리기 시작한다. 우비를 꺼내 입으려다 그리 심하지 않아 그냥 맞고 가기로 하고 계속해서 걸어간다. 다행히 평지길이 이어져 그리 힘들지도 않고,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타네마지의 본존은 약사여래불로, 백제의 장인들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를 건립하기 위해 일본으로 초빙됐던 장인들이 귀국하던 도중 풍풍우를 피해 잠시 이곳에 머물렀고, 무사히 백제에 돌아가길 발원하며 조성했다는 것이다. 후에 코보 대사께서 이곳에 오셔서 사찰을 건립해 불상을 모시고, 당에서 가져온 오곡의 종자를 땅에 심었다는 것에서 사명에 ‘씨앗(種)’이란 글자가 들어간다.

본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대사당을 향하는데 담장 너머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린다. 소리에 이끌려 담 너머를 보니 연꽃이 활짝 핀 연못이 있다. 아침에 간간히 내린 비에 젖어 한층 더 아름다웠다. 한참을 연꽃을 보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대사당에 예불을 올리고 납경을 받았다. 오늘의 첫 도보순례자라고 과자 한 봉지를 오셋타이 받았다.

오늘은 조금 서둘러서 35번 쇼류지(靑龍寺)까지 갈 계획이다. 쇼류지 위에 있는 ‘국민숙사 토사(國民宿舍 土佐)’에서 묵는 것이 오늘의 목표. 염불보다 잿밥 격이 된 오늘의 목표지만 오래전부터 순례자들의 입소문이 난 곳에서 한 번 묵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듯했다.

34번 키요타키지(淸瀧寺)로 향하는 길은 마을들을 통과해 강둑을 따라 걷는 호젓한 길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토사시의 중심부를 관통해 걷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갑자기 도시를 통과하는지라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순례자들을 위해 여기저기 빨간 화살표가 붙어있다. 평지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시작되는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간다. 경사가 있지만 길이 잘 닦여있어 힘들지는 않다. 키요타키지의 본존도 약사여래불. 8세기경에 쿄키 스님이 조성해서 봉안하고, 사찰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후에 코보 대사께서 이곳에서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며 흙으로 단을 세우고 7일간 기도를 올리셨는데 회향하던 날, 석장으로 불단을 찌르자 맑은 물이 샘솟아 폭포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사찰의 이름이 ‘키요타키(맑은 폭포)’가 되었다. 이 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른 적 없이 마을을 향해 흘러가 농지의 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 키요타키지는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계단순례(戒壇巡り)’이고, 다른 하나는 신뇨(眞如) 스님의 ‘역수탑(逆修塔)’이다. 계단순례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신앙의 하나이다. 다른 말로는 ‘태내순례(胎內巡り)’라고도 한다.

법당의 지하나 천연동굴 등 어둡고 좁은 험로를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 혹은 저승을 다녀온 것을 의미해 업장을 소멸하고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전승도 있다.

키요타키지에는 본당 앞에 서있는 약사여래불의 좌대 밑에 계단순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한 바퀴 돌고 나올 수 있게 되어있다. 조명 하나 없는 캄캄한 좌대 밑의 길을 손으로 더듬어 가면 마지막에 작은 불단을 만나게 된다. 불단에 켜진 초 두 개가 계단순례의 유일한 조명이다. 어둠 속에 마음을 졸이다가 보이는 불빛이 어찌나 반갑던지! 새삼스레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역수탑 역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풍습이다. ‘역수(逆修)’란 거꾸로 닦는다는 뜻인데 살아 생전에 저승의 공덕을 닦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생전예수(生前預修)와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재를 지내지만, 일본은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역수탑의 개념이다.

이 탑의 주인인 신뇨 스님은 코보 대사의 직계 제자로, 원래는 태자였다. 역모사건에 연계돼 폐위된 후 출가한 신뇨 스님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코보 대사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그 배움에 부족함을 느껴 코보 대사의 입적 후에 당으로 유학을 결심했고, 당으로 유학을 떠나던 중 스승인 코보 대사의 유적을 참배하기 위해 키요타키지에 올라 자신의 역수탑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지역 전승에서는 이때 신뇨 스님에 의해 88개소가 정비되었다고도 한다.

신뇨 스님은 역수탑을 세우고 당으로 떠났다. 그러나 당에서 스승을 찾지 못해 인도유학을 결심하고 해로로 인도를 향하던 중 지금의 말레이시아에서 입적하셨다. 이후 이 탑은 신뇨 스님의 유일한 자취가 됐다. 탑이 모셔진 산기슭은 성지로 여겨져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이 굳게 닫혀있다. 납경소에 물어보니 사찰의 스님들도 감히 들어가지 않으며, 오래전 문화재 지정 조사를 위해 한번 열린 후로 공식개방은 없었다고 한다.

아침에 걷기 시작했을 땐 쇼류지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여유롭게 갈 수 있을 듯해서 발걸음을 조금 늦춘다. 35번을 5km 정도 남겨두고 늦은 점심을 먹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미숫가루 반죽에 생강편과 건살구. 자칭 ‘순례자 정식’이라고 부르는 식사다. 점심을 먹으면서 ‘국민숙사 토사’에 전화를 걸어 1박을 예약했다. 마침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가격이 있다기에 순례자임을 밝히니 35번에 도착해 전화를 주면 픽업을 나온다고 한다.

점심을 해치우곤 다시 길을 나선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트인 경관에 멀리 쇼류지가 있는 요코나미 반도가 보인다. 옛날엔 이곳에서 나룻배를 타고 35번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리가 걸려있다. 만약 35번을 순례하고 다음 순례지로 가려 했으면 다리 앞의 상점에 짐을 맡겨 두는데, 이번은 35번이 오늘의 끝이니 즐겁게 짐을 짊어지고 간다.

35번 쇼류지는 코보 대사가 당에서 유학했던 장안의 청룡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전설에는 코보 대사가 중국의 포구에서 절을 세울 만한 땅을 기원하며 독고저(獨股杵)를 일본을 향해 던졌는데, 그 독고저가 이곳의 소나무에 걸려 빛을 내뿜는 것을 찾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전한다. 그래서인지 산문의 옆으로는 코보 대사의 은사인 혜과 아사리를 모신 혜과당(惠果堂)과 스님의 부도가 있다.

참배를 마치고 숙소에 전화를 거니 5분 뒤에 차가 마중을 나왔다. 산 정상에 자리한 숙소에 들어가 순례자들을 위한 도미토리 방을 안내 받는다. 오늘 묵는 순례자는 나를 포함해 3명.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다. 데스크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노천탕을 꼭 가보라며 추천해 줬다. 경치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의 노천탕에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어 전세 낸 것 같은 노천탕의 경치는 과연 최고였다. 탕 아래로 드넓은 태평양이 펼쳐졌다. 날이 조금 흐린 게 아쉬웠지만 30km를 고생해 걸어온 보람이 있다.

단 하루를 걸었을 뿐인데 다양한 불교설화와 아름다운 경관에 젖을 수 있는 시코쿠 순례길. 앞으로의 여정은 또 어찌될지 기대하면서 눈앞의 경치를 즐기는 시간을 만끽했다.

〈자유기고가〉

순례의 Tip



국민숙사 토사의 노천탕.

– 33번 셋케이지는 도착 전날까지 문의하면 본당의 본존불을 친견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비공개일 수도 있다.

– 34번, 35번 사찰 모두 츠야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처에 가게가 없기에 먹을거리는 각자 마련해야한다.

– 순례기에 나온 국민숙사 토사는 2017년에 영업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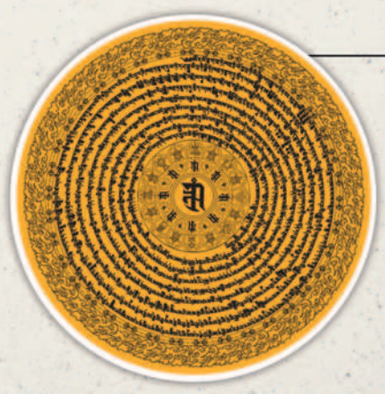
천도되길 원하십니까? 장수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다라니를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염송하면 “모든 악업이 닦이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위신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33도리천에서 제석천에게 천자가 죽은 후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에서 벗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시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제석천은 음성이 아닌 정수리의 육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 다라니가 남갤마다라니입니다.

액 자
100,000원
액자를 구매하신 분은 남갤마다라니 21일 기도 축원해 드리며, 차량스티커 2매를 드립니다.
크기 37×37㎝





차량스티커
10,000원
남갤마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차량 운행 중 미물살생에 대한 과보에서 벗어나고 사고방지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붓다평화위원회 032)522-5554 / 010-6272-1655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3~4/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명상이 뇌를 바꾼다	장현갑	불광출판사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대승기신론 (전2권)	마명/성본스님	민족사
3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8	파아나두라 대논쟁	석오진	운주사
4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제프리 홉킨스/이종복	담앤북스	9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정여스님	담앤북스
5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10	버려서 얻은 단 하나의 자유(우리 시대의 스님 23인의 출가기)	유응오	마음서재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에 귀의하라"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달라이 라마 가르침/제프리 홉킨스 편역
이종복 옮김 /1만 6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4월은 흔히 죽음의 달이라 불린다. 우리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아도 이달에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웰다잉이 유행처럼 떠오르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죽음을 대면하는 연습'은 과연 얼마나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연습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티베트에서는 임종 시, 머리맡에서 귓속말로 〈사자의 서〉를 읽어 주며, 죽은 자가 중음도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할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에 대해 명상할 때 쓰이는 시가 있다. 바로 제 1대 빤첸라마가 지은 〈중음도(中陰道)〉의 위험한 곤경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기원문, 두려움서 해방된 영웅이다.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하듯, 죽음의 순간과 중음도에 있는 동안 일어날 환영이 줄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시의 조언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무상에 대해 성찰하고 또 성찰하라"
죽음,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죽음학'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는 이 시의 열일곱 연에 대한 해설이자, 죽음 전반에 대한 달라이 라마의 통찰이 담긴 책이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그림 그리듯 감각화, 이미지화하여 풀어낸다는 점과 더불어, 읽다 보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이 가장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현재의 제 14대 달라이라마 성하는 2019년 84세가 되셨다. 이로써 역대 달라이라마 가운데 최장수를 누리고 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명상과 기도를 하며 독서와 운동, 외부 활동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낸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 진실을 잊지 않는다. 그는 평상시 무상(無常), 고(苦), 공성(空性), 무아(無我)에 대하여 사색한다. 더불어 매일 행하는 의식(儀式)수행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의 단계들에 대해 명상한다.

달라이 라마는 죽음으로 가는 여덟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한 후, 현재의 삶과 다음 삶 사이의 '중음도' 그리고 '환생'의 단계에서 우리가 각각 어떤 과정을 건너게 되고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 나간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죽음에 관한 숙고를 거쳐 자신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이번 책 부제는 〈죽음에 대하여, '강력한 선함'을 지닌 채 살아감에 대하여〉이다. 잘 죽는 일이란 결국 잘 사는 일과 나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대면할 수 있다면 삶을 보는 시야 역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잘 사는 일이란 결국 사랑과 자비, 선을 이 생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달라이 라마의 안내를 따라 두려움 없이 맞는 죽음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탐사해 보자.

▲저자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운 인물이다. 1935년 티베트 암도 지방의 농가에서 출생했으며, 어린 시절 이름은 라모톤둡이었다. 2살 때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인정받았으며, 1940년 제14대 달라이 라마로 공식 취임하였다. 그러나 1951년 '티베트 평화해방의 방법에 관한 협의'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을 통치하기 시작하자, 1959년 3월 중국 공산당을 피해 인도로 망명하였다. 이후 달라이 라마가 세운 인도 다람살라의 망명정부는 티베트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전 읽고 불법 공부하고, 그림 그리니 행복해져"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최혜자 지음/운주사 펴냄/1만 5천원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는 팔순을 넘긴 노 불자가 마음으로 그린 그림과 마음공부의 단상을 함께 엮었다. 불치병 환자라는 삶의 고통스런 상황을 평온과 행복으로 바꿔놓은, 저자의 불교공부와 수행의 과정을 그림과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린 저자는 설상가상 어린 아들을 혼자서 키워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과 함께 태국을 거쳐 프랑스로 건너간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아들을 키워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2018년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한국을 떠난 지 45년여 만의 일이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아픈 몸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경제활동 외에, 집안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그 와중에 운명처럼 붓다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고, 수술대 위에 올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연꽃이 그리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림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퇴원을 하고, 그때의 그 간절함을 살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색깔이 드러내고 싶은 대로……



저자 최혜자 씨의 작품.

그런데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 조용한 미소와 평화스러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주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요 기쁨이었다."

그렇게 그림들이 한 점 두 점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경전을 읽고,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속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과 상실감 등을 잊을 수 있었다. 아니, 삶이 행복하게 변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불경과 그림 사이에서 매일같이 몇 시간씩 보내고 나면 저절로 나는 충만함에 빠져서 그날그날을 중병 든 사람 같지 않게 평화스러움 속에서 보낸다. 다 그린 그림 속의 부처님들을 바라보면서 느껴가는 이 터질 것 같은 기쁨들을 이루 표현할 수는 없으나, 나는 병든 자의 고통과 외로움을 안정시켜 갈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

오랜 세월 불교를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가르침들을 곰씹어 한쪽 면에 싣고, 다른 한쪽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배치하여, 눈도 마음도 평온하게 맑히는 책이 되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최혜자**는?

1938년생. 돈암초등학교와 경기여중 · 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1973년 태국으로 이주했으며, 마하짜끄리 시린톤 공주의 법구경 해설 시집 〈불교 격언에 따른 시〉를 번역 · 출판(86년)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88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살다가 2018년 가을 한국에 돌아왔다. 30대 말부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불교 공부와 그림 작업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실을 모아 이번 책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를 비롯해서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올해의 불서 10),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세종우수도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 등을 펴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문명 없는 문명 타왕복드의 가르침

알타이 유목민 돕기 특별 기획전
'알타이, 푸른 하늘을 꿈꾸며…'
불일미술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알타이 유목민을 돕기 위한 사진전이 열린다. 서울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특별기획전 '알타이. 푸른 하늘을 꿈꾸며' 를 개최한다.

알타이 유목민들의 의약품지원 기금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감 스님(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과 사진작가 이승호, 불자 김국일 씨가 1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몽골 알타이 타왕복드 지역의 자연과 주민들의 삶을 촬영한 사진 100여 점을 선보인다.

"알타이, 푸른 하늘을 꿈꾸며…, 알타이 타왕복드, 신령스러운 설산 아래 우리와 닮은 얼굴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옛날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이어서, 전통 유목민의 숭고한 삶을 아름답고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랑 얼굴도 닮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생각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같은 조상의 후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을 기록한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감 스님과 알타이 타왕복드 지역 주민들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타왕복드 지역은 약 5천 년 전에서 약 7천 년 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암각화가 많은 지역이다.

일감 스님은 3년 전 처음 암각화를 보기 위해 타왕복드를 찾았다. 암각화에는 문명을 이루고, 문명의 속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곳의 암각화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금의 생각과 다른 지혜, 지금의 방식과 다른 삶, 지금의 세계와 다른 문화 등 그림 속에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현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

수행의 일환으로 몽골 지역을 찾아온 일감 스님은 휴가 때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타왕복드를 찾았다.

암각화를 보기 위해 9차례 몽골 지역을 찾았고, 그중 타왕복드 지역을 4차례 찾았다. 스님은 암각화의 탁본을 만들고 그곳의 주민들과 교감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사진들은 4번 째 방문의 흔적들이다. "사진에 담긴 타왕복드 지역엔 10가구 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곳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난 방문에서 문명과 떨어져 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의약품입니다. 병원과 약국이 먼 그곳의 사람들에게 가정상비약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승호 作


일감 스님 作


이승호 作

지난 방문 때 할머니 한 분이 어깨통증을 호소했는데, 가지고 간 진통제를 요긴하게 쓸 수 있었고, 그때 가정상비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일감 스님은 방문 때마다 암각화 탁본과 현지의 사진을 촬영해왔는데, 다음 방문 때 주민들에게 사진을 선물해왔다. 일감 스님과 세 번째 타왕복드를 방문한 사진작가 이승호 씨는 그 동안 타왕복드를 사진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의 사진은 대부분 이승호 작가의 사진이다.

사진은 제목에서처럼 타왕복드의 푸른 하늘과 그 푸른 하늘 아래서 푸르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일감 스님은 전시를 준비하며 "미세먼지로 푸른 하늘을 보기 힘들어진 우리의 오늘에서 전시의 제목을 떠올렸다"고 했다.

이승호 사진작가는 오래전부터 각지의 산사 등 불교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왔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불자들과의 만남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그들이 잘 지켜온 푸른 하늘과 고대 암각화를 우리의 후손들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며 기금마련에 많은 동참을 부탁했다.

일감 스님은 이번 전시의 수익금으로 의약품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7월에 타왕복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02)733-5322.

사진으로 해석한 '진공묘유'

라규채 사진전 '진공묘유(眞空妙有)'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기획초대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공묘유(眞空妙有), 일체를 공(空)으로 볼 때, 일체는 성립된다. 쉽고도 어려운 진리의 세계를 사진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담양의 대나무를 소재로 작품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사진가 라규채 씨가 '진공묘유' 를 사진으로 해석했다.

라 작가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로터스갤러리(광주 무각사)에서 기획초대전 '진공묘유' 전을 개최한다. 라 작가가 그동안 진행해온 Emptiness project(空 시리즈)의 열네 번째 개인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수많은 점들로 이미지를 구성한 흑백사진들로 우리가 평소 눈으로 보고 있는 사물들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라 작가는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반사광에 의해 드러나는 외형적 허상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태양광에는 가시광선을 비롯한 자외선, 적외선, X선, 알파 · 감마 · 베타선 등 수많은 광선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 하나밖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선사상(禪思想)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물질에는 본래 실체가 없는 공(空)을 표현하고 있다. 그 공(空)의 끊임없는 진동이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며, 가시적 세계는 이러한 진동의 리듬이 만들어내므로 우주 속 삼라만상의 본질이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미세하게 흐르는 파동과 진동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라규채 作 Untitled #020

작품에서 텅 빈 공간과 간격을 통해 빈 공간이 형상적인 가시적(可視的)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망막의 단순한 지각활동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지적(可知的)세계와 형이상학적 충만함이라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의미를 담아냈다.

라규채 작가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국내외에서 14회에 걸친 개인전(초대전)과 1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또한 미얀마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포토에세이 '하늘은 나는 새는 뼛속까지 비운다' 를 비롯해 6권의 사진집을 출간했고, '사진 오늘의 작가상' 을 수상했다. 전시회 오픈행사는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062)383-0070.

박재완 기자

법석부터 시사까지… BBS 봄맞이 개편

4월 1일부터 편성 · 송출 시작
이상휘 교수 '아침저널' 맡아
천태종 스님들 3분설법 눈길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라디오가 4월 1일부터 봄 개편을 통해 고품격의 시사와 음악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편성했다.

우리 시대의 현장 이야기로 아침을 여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아침저널' 은 4월 1일부터 새 진행자를 내세웠다. 아침저널의 새로운 진행자인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 위덕대 부총장 등을 지냈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시사 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은 매일 아침 뉴스의 중심인물을 초대하는 파워 인터뷰와 수요 정치토크, 최순애의 이슈 상담소, 북한 인사이트, 박찬종 전 의원과 함께 하는 고수 사이다, 이것이 법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청취자들을 만난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BBS FM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고품격 음악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는 '최다혜의 음악을 거닐다' 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방송된다.

피아니스트 최다혜 씨는 국내외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면서 음악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다. '최다혜의 음악을 거닐다' 는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을 비롯하여 다양한 뮤지션들의 깊이 있는 음악세계를 통해 주말과 휴일 청취자들에게 음악적 휴식과 위안을 선사할 예정이다.

1990년대 가수 김광석이 진행한 BBS불교방송의 간판 심야 프로그램 '밤의 창가에서' 는 4월부터 구자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를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채운다.

한국 불교의 주요 종단인 천태종 스님들의 3분 설법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천태의 법향' 은 매일 오전 5시 55분에 방송되며 현대인들의 고뇌와 종교적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성민 기자



땅설법, 지금까지 이런 법석은 없었다

한국불교민속학회, 3월 30일 관련 학술세미나

안정사 전승 확인된 땅설법
역사적 가치 · 위상 등 조명해
민중 근기 맞춘 통속적 설법
종합 공연 예술로서 역할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공연장 북과 장구가 울리니 파란 장삼에 나무 부채를 든 스님이 구성진 가락을 뽑아낸다. "선재동자가 수행의 길을 떠나갈 때 십신으로 수행하고 화엄회상 불보살."

대중은 스님의 가락에 맞춰 〈화엄경〉의 7처 9회를 형상화 한 무대의 탑을 중심으로 앞뒤로 오간다. 또는 삼삼오오 모여 만다라를 구성하기도 한다. 시연단도 청중들도 "화엄회상 불보살"을 외치며 호응하는 모습은 그 옛날 어딘가의 저잣거리 같다.

이들이 시연한 것은 '땅설법'이라는 불교무형유산으로 그간 구전으로만 있었다고 전해지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에 전승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불교민속학회(회장 홍윤식)가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전승이 확인된 땅설법에 대한 역사성과 위상을 논의했다.

이날 불교민속 전문학자들은 땅설법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여러 예술행위를 통해 불교의 요지를 알리는 법석임을 강조했다.

땅설법에 대해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는 "하나의 법사 · 도창승이 가창과 강설 · 연기로 고수 내지 대중과 함께 연출하는 포교적 공연예술"이라며 "그 중에서도 가창과 강설 · 연기 중심의 강창극"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땅설법은 대중 설법을 위한 종합예술적 방편으로 땅위에서 승려들이 중생들을 교화 · 접인하기 위해 베푸는 재미있는 설법 형태"라면서 "이른바 대승적 승려들이 서민 대중의 근기 · 성정에 맞춰 펼치는 통속적 설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전승되고 있는 땅설법은 화엄신앙이 토착화되는 일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봤다. 현재 삼척 안정사에 전승되고 있는 땅설법은 석가모니일대기, 목련존자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등으로 이 같은 놀이는 모두 〈화엄경〉에 근거한다.



한국불교민속학회가 3월 30일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삼척 안정사 시연단이 땅설법을 시연하고 있다.

홍윤식 불교민속학회장은 "삼척 안정사에 전승되고 있는 화엄성중놀이와 땅설법은 일단은 〈화엄경〉에 의한 화엄성중신앙이 민속화되는 과정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엄경〉의 신앙체계가 일즉다 다즉일의 체계에서 부처의 세계가 민속신앙의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재위원 효탄 스님은 원형 발굴 · 기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효탄 스님은 "잊혀졌던 땅설법의 원형을 발굴해 기록을 남기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며 "만석승희와 같은 전통문화의 전모의 발굴과 문화콘텐츠화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국보' 승격된다

문화재청 4월 1일 지정예고
위덕왕, 왕자 명복 발원하며
577년 조성… "最古 사리기"
공예적으로 높은 완성도 보여
직지사 · 대둔사 불화 보물예고

현재 현존하는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사리기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가 국보로 승격된다. 또한 직지사와 대둔사 소장 조선시대 불화들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 공예품인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을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로 명칭을 변경해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 또한 '김천 직지사 괘불도' 등 조선 시대 불화와 서책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지난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의 목탑지에서 발굴한 유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출토 당시 금당(金堂, 대웅전) 앞 목탑지의 사리공(舍利孔, 사리기를 넣은 네모난 구멍)에서 진흙 속에 잠긴 채 발견됐다. 이후 보존처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확인됐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한국의 현존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사리기이다.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청동제사리합-은제사리호-금제사리병 순의 3가지 용기로 구성됐으며, 청동제사리합 겉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사실과 백제 위덕왕(威德王)이 죽은 왕자의 명복을 위해 조성됐음이 확인됐다. 이는 현존 사리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성연대를 보인 것이다.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 세부 구조물을 주조하고 접합한 기법, 표면을 깎고 다듬는 기법 등에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하고 단아한 모습과 보주형 꼭지, 주위를 장식한 연꽃문양 등은 '공주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525년 조성)'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639년 조성)'를 조형적으로 연결한 도상으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 · 예술적 가치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연대를 가진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공예와 조형 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고 국보 승격의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영조 16)에 영산회상도,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불도와 함께 조성되어 대둔사에 봉안됐던 작품으로, 이 중 삼장보살도만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

가로 279cm, 세로 238cm의 대규모 화면에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 등 세 보살을 묘사한 불화로, 월륜 · 치흠 · 우평 스님 등 18세기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畵僧)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함께 지정예고된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1803년(순조 3년)에 제작된 괘불로,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시기가 가장 이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머리에 보관을 쓴 보살형 본존이 양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독존 형식의 괘불도다. 괘불 하단에 쓰인 화기(畵記)를 통해 직지사를 중심으로 경북 권역에서 활동한 제한을 비롯 위전 · 탄잠 · 부첨 · 신화 등 총 13명의 화승이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와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현황파악과 정밀기록화를 위해 진행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대형불화(괘불) 정밀조사' 사업을 통해 가치가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승격 예고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김천 직지사 괘불도'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염불선 주창 청화 스님 수증론 체계 논한다

청화사상硏, 20일 무안서 학술세미나



염불선을 주창하며 '전통불법의 재천명'을 기치로 중생들을 제도했던 청화 스님〈사진〉의 수증론 체계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 이하 연구회)는 4월 20일 오후 1시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선오후수(先悟後修)와 수증론 체계 고찰'을 주제로 제1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교수가 ''삼예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한 돈점과 선오후수'를, 중앙승가대 법상 스님의 '금강심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오후수와 돈점론', 황금연 경희대 교수의 '무주청화의 선오후수와 육조혜능의 돈점론에 관한 연구'가 각각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정성준 동국대 교수, 김호귀 동국대 교수, 최성렬 조선대 교수가 참여한다.

첫 발표자인 조준호 교수는 티베트 삼예 논쟁을 통해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 사상을 재조명을 재조명한다.

법상 스님은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이 명시한 해탈 16지에 담긴 선오후수의 돈오점수에 대한 정통성을 입증하고 현재 한국불교에서 두 스님의 수행법이 정해탈과 혜해탈을 위한 불가결한 법문임을 강조한다.

황금연 교수는 청화 스님의 법어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과 수행관은 부처님을 종주로 하는 일원주의와 선 · 교의 회통주의적 관점을 기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청화 스님의 출생지인 전남 무안군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특히 청화대종사기념사업회(회장 혜용)는 청화 스님이 창건한 혜운사를 중심으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념사업회장 혜용 스님은 "무안 출신 청화 스님은 무안을 넘어 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체계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130차 월례발표회

4월 12일 법련사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2층 교육관에서 제13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헌 스님(동국대)의 '청화 선사의 무아론적 사상과 실천수행'과 동명 스님(동국대)의 '진각혜심과 원감충지의 애민시(愛民詩) 연구'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마해륜 (고려대), 박재금 (前 이화여대)이 각각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재완의 PhotoEssay



만사여의(萬事如意)

전생의 기억을 잃어
짧은 숨 한 줌마다
수없이 나는 많고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바람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나 사이에
작은 법당이 하나
타오르는 향이 하나
유정이 무정에 끌리는
오늘이 하나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㉚ 구상 시인 (하)

주변 힘든 삶 외면 못하는 인간애 돋보여

"오늘도 어버이날에 맞춰서 / 교도소에 있는 의(義)아들로부터 / 편지가 왔다. // "아버님, 올해도 꽃 한 송이 / 가슴에 달아드리지 못하고 / 이렇게 마음만 전하옵니다 / 라는 사연이었다. // 그 애는 15년째 옥살이를 하는 無期囚, / 아니,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조작된 / 살인강도죄로 사형선고를 받고서 / 그 집행의 날만을 마음 졸이다가 / 어느 스님의 앞장선 탄원으로 / 겨우 목숨만을 건진 40세의 젊은이 // 그 구출 서명에 동참한 인연으로 / 나와는 父子之緣까지 맺게 되었지만 /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 애비,//〈후략〉"

위는 구상의 시 '어버이날에 온 편지 1' 의 일부이다. 시 속의 '의(義)아들' 은 사형수 최재만 씨이고 '스님' 은 나다.

1981년 2월 6일 밤,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의 농협분소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 분소장 이모씨(당시 38세)가 가슴과 등을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었다. 2월 19일 밤, 안양 역전 우체국 금고를 털려다 붙잡힌 최재만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월 6일 발생한 농협 청계분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다. 최 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자백이 경찰의 심한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며 자신은 살인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 씨는 다음해 8월 14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수가 된다.

1983년 7월, 나는 교화활동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최 씨와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난 최 씨는 손에 염주를 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불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최 씨와 남다른 시작으로 인연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서로의 염주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남다른 기억으로 시작하고픈 나의 '프로포즈' 였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선의였기에 나는 당연히 최 씨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 씨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황스러웠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던 제안을 그가 거절한 까닭이 궁금해졌다. 일단 그의 염주가 궁금해졌다. 나는 구경이나 한 번 하고 싶어 그에게 청했다. 건네받은 최 씨의 염주알 하나하나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염주알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금강경〉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염주알 하나에는 '나는 억울하다' 고 새겨져있었고 그 옆에는 '必歸家(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사형수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단 말인가. 나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정말 죄가 없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최 씨는 지나간 일을 이야기했다. 최 씨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나는 그의 억울함이 사실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 씨(당시 36세)는 복역 중 병세가 중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되어 치료를 받는 중에 사망했다. 이 씨는 심문 도중 고문으로 허리, 척추, 가슴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 다른 공범 권 씨(당시 19세)는 소년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 그 역시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가 살인사건과 무관함을 확신한 나는 83년 10월, 최 씨의 구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가 최 씨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를 열어 재판기록을 조사한 결과 의문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추진했다. 1983년 12월 13일, 최 씨가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몇 가지 증거를 찾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1984년 9월 17일 '객관적 우위성이 있는 증거가 아니다' 는 이유로 기각됐다. 최 씨는 9월 22일 재심청구 기각에 대해 항고했다. 최 씨의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7백 명이 서명한 사형집행 보류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구명운동에 변호사회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사형집행은 미뤄지고 있었다.



고단한 교화활동의 길을 함께 걸어준 구상 시인. 그 왼쪽이 박삼중 스님, 오른쪽 두번째가 김수환 추기경.

최 씨 구명운동 함께 하며 서신 왕래도
양아들 석방 위해 'MBC 수사반장' 출연

최 씨와 부자의 연을 맺은 구상 시인은 최 씨와 꾸준히 편지왕래를 해왔다. 최 씨는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구상 시인에게 "아버님, 올해도 꽃 한 송이 가슴에 달아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만 전합니다."고 글을 전했고, 구상은 최 씨에게 "죽기 전에 내 아들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싶다"고 답했다. 그렇게 최 씨와 부자의 정을 쌓아가던 구상은 최 씨의 석방을 위해 MBC '수사반장' 에 출연까지 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이었다. 구상은 선천적으로 상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TV출연은 구상과 거리가 먼, 아니 절대로 안하는 일 중 하나였다. "당신이 출연해야 당신 아들 재만이가 석방될 수 있다"는 말 한 마디에 구상은 방송에 출연해 진정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찍게 된다.

강도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최 씨는 1988년 2월 26일 무기수로 감형됐고, 2000년 5월 10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9년 만의 출소였다. 그 19년의 세월 속엔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구상 시인이다.

나는 구상 시인의 생의 마지막 날을 지켜봤다. 할 말이 있다며 옆에 앉아보라는 그의 말에 그의 곁에 앉았지만 차마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없어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 괴로워서 볼 수 없었다. 올해가 구상 시인 탄생 100주년이다. 나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에 왔던 구상 시인은 늘 나를 출가자로 바라보았다. 늘 상석을 내어주고 격식을 잊지 않았다. 고단한 교화활동의 길에 함께 걸어준 고마운 이다. 안타까운 삶을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하고 따뜻한 이다.

정리=박재완 기자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